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차 경 옥 교수 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금융소비자가 인식하는 자기책임의  
차원과 영향요인 분석

202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구 지 연

# 금융소비자가 인식하는 자기책임의 차원과 영향요인 분석

차 경 옥 교수 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구 지 연

# 인준서

구지연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3년 4월

심사위원장 이경옥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주소현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서인주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차경옥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이신애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투자는 미래의 불확실한 기대수익을 위해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포기하는 경제적 선택이다. 투자위험은 손실 발생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하며, 투자수익의 변동성을 의미한다. 금융투자상품의 본질은 투자성이고, 투자성이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높은 위험이 따르며, 위험의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의사결정에 따르는 의무, 부담, 책임을 의사결정자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보호 관점도 필요하지만, 금융소비자의 책임있는 의사결정 및 행동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금융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소비자의 주권과 권리를 보장받기 쉽지 않으며,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한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기책임 인식은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투자 과정에서 인식하는 자기책임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윤리학, 법학 영역의 선행연구 및 관련 법제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인식하는 자기책임의 하위차원과 척도를 구성한 후,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학, 심리학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기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성향, 재무관리역량, 금융투자에서의 행동 특성 등을 파악하여, 금융소비자의 특성과 역량에 따라 각 차원별 자기책임 인식수준을 비교하고자 한다. 나아가 각 차원별 자기책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에 거주하는 만 20세~만 69세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 구매 경험이 있는 성인으로 조사대상을 제한하였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 할당표집 하여 총 42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고,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t-test, 교차분석(chi-square), 일원분산분석(ANOVA),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투자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인식하는 자기책임의 차원과 척도를 구성하여, 자기책임에 대한 인식을 보다 넓은 의미로 확장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4개 요인, 21개의 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검증하고, 집중타당성 및 판별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도덕 책임 4문항, 주권자 역할책임 5문항, 사회적 역할책임 4문항, 법적 책임 6문항으로 구성된 19개의 문항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하위 차원과 척도는 향후 실증연구에서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고 해석하는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역할책임 영역은 주권자 역할책임과 사회적 역할책임이라는 두 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주권자 역할책임은 금융거래 당사자로서 개인의 영역에서 의무 수행 및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된 책임을 의미한다. 반면, 사회적 역할책임은 시장 전체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관련된 책임이다. 금융환경이 급변화하고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요구되는 역할 또한 세분화 및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거주지역, 직업, 연령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수준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재무상태에 따라 자기책임 인식수준을 비교한 결과 월평균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주권자 역할책임을 높게 인식하였고, 총자산이 많은 집단은 총자산이 적은 집단보다 높은 도덕 책임 인식수준을 보였다.

넷째, 재무관리태도 역량과 재무관리기능 역량에 따른 자기책임 인식수준

차이를 검증한 결과, 도덕 책임, 주권자 역할책임, 사회적 역할책임, 법적 책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섯째, 통제위치 성향에 따라 자기책임 인식수준 차이를 검증한 결과, 내적통제 성향이 높은 수준이면, 도덕 책임, 주권자 역할책임, 사회적 역할책임, 법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조절초점 중 향상초점 성향이 높은 집단은 향상초점 성향이 낮은 집단보다 도덕 책임, 주권자 역할책임, 사회적 역할책임, 법적 책임에 대한 인식수준이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예방초점은 도덕 책임 인식수준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섯째,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에 따라 자기책임 인식수준 차이를 검증한 결과, 금융투자상품을 선택,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높은 집단은 자율성이 낮은 집단에 비해 도덕 책임, 주권자 역할책임, 법적 책임 인식수준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일곱째, 각 차원별 자기책임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 거주하는 금융소비자가 다른 지역 거주자에 비해 모든 자기책임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복잡한 금융환경, 활발한 금융거래, 수도권 집중도가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고, 이를 오용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투자유형이 안정추구형, 적극투자형은 위험수익중립형에 비해 전체 자기책임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투자원금의 손실위험 최소화를 원하는 안정추구형 집단의 경우, 도덕 책임, 주권자 역할책임 등 개인적 차원의 책임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그에 반해 높은 투자수익을 위해 손실위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적극투자형 집단은 사회적 역할책임 인식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아홉째, 내적통제 성향, 재무관리태도는 도덕 책임, 주권자 역할책임, 사회적 역할책임, 법적 책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자신의 삶과

성공은 자기 내부에서 기인한다고 믿고, 본인의 행위나 노력을 중시하는 태도, 본인의 재무상태를 점검하고 장기적인 재무계획을 수립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 강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임을 의미한다.

금융투자에서 자율성 수준이 높을수록 도덕 책임 인식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금융거래 환경과 자율성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재무관리기능은 사회적 역할책임 인식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금융투자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능역량이 높을수록 시장거래의 주체로서 사회활동적 책임의식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인식을 함양하고자 할 때는 재무관리기능을 높일 수 있는 정보제공 및 기능을 익힐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은 주권자로서 권리 실현과 금융소비자보호의 선진화를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금융소비자가 자기책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스스로가 최소한의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성숙한 투자문화와 공정한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금융소비자의 책임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금융소비자가 인식하는 자기책임의 하위 차원과 척도를 구성함으로써, 자기책임의 개념과 범주를 정리하고, 자기책임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각 차원별로 금융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각 금융소비자 특성별로, 각 차원별로 자기책임 인식 제고를 반영하여 차별화된 교육 및 프로그램 전략 모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목 차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4

## II. 선행연구 고찰

1. 자기책임의 개념과 영역 .....	8
1) 자기책임의 개념 .....	8
2) 윤리 영역에서의 자기책임 .....	9
3) 법 영역에서의 자기책임 .....	13
4) 소비자로서의 자기책임 .....	18
2.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	23
1)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	23
2)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자기책임 .....	25
3)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원칙의 특수성 .....	29
4)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관련 선행연구 .....	30
3.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관련 변수 .....	36
1) 심리변수 .....	36
① 통제위치(Locus of Control) .....	36
② 조절초점(Regulatory Focus) .....	38
2) 재무관리역량(Financial Competency) .....	40
3)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 .....	41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45
2. 연구분석절차 .....	47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48
4. 측정도구의 구성 .....	48
5. 분석방법 .....	62

###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63
2. 연구문제1 : 금융소비자가 인식하는 자기책임의 차원과 척도구성 .....	68
1) 탐색적 요인분석 .....	68
2) 확인적 요인분석 .....	73
3. 연구문제2 : 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른 자기책임 인식수준 비교 ...	78
1)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수준 .....	78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책임 인식수준 차이검증 .....	79
3) 재무특성과 재무관리역량에 따른 자기책임 인식수준 차이검증	84
4) 심리적 성향에 따른 자기책임 인식수준 차이검증 .....	89
5)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에 따른 자기책임 인식수준 차이검증 ..	93
4. 연구문제3 : 각 차원별 자기책임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4
1) 자기책임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94
2) 도덕 책임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98
3) 주권자 역할책임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01

4) 사회적 역할책임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04
5) 법적 책임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07
6) 각 차원별 자기책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	109

##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논의 .....	113
2. 제언 .....	119

참고문헌

ABSTRACT

설문지

## 표 목 차

<표 1> 윤리 영역에서 구분한 책임의 하위영역 .....	12
<표 2>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소비자 책임의 영역 .....	20
<표 3>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기본법의 책무와 권리 .....	28
<표 4>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의 개념과 하위개념 .....	35
<표 5> 측정도구의 구성 .....	49
<표 6> 재무역량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	53
<표 7> 통제위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	55
<표 8> 조절초점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	56
<표 9>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	58
<표 10>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수준 척도 예비문항 구성 .....	59
<표 1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63
<표 12> 조사대상자의 재무상태 .....	65
<표 13> 조사대상자의 투자 관련 특성 .....	66
<표 14>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 .....	71
<표 15> 모델 적합도 지수 :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 .....	74
<표 16>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적재량과 집중타당도 검증 .....	75
<표 17> 상관분석 및 판별타당도 검증 .....	76
<표 18>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 하위 차원과 척도 .....	77
<표 19> 조사대상자의 자기책임 인식수준 .....	79

<표 2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책임 인식수준 차이검증	81
<표 21> 재무상태에 따른 자기책임 인식수준 차이 검증 .....	85
<표 22> 금융투자 특성에 따른 자기책임 인식수준 차이 검증 .....	86
<표 23> 재무관리역량에 따른 자기책임 인식수준 차이 검증 .....	89
<표 24> 통제위치 성향에 따른 자기책임 인식수준 차이검증 .....	91
<표 25> 조절초점 성향에 따른 자기책임 인식수준 차이 검증 .....	92
<표 26>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에 따른 자기책임 인식수준 차이 검증 ..	94
<표 27> 자기책임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97
<표 28> 도덕 책임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00
<표 29> 주권자 역할책임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03
<표 30> 사회적 역할책임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06
<표 31> 법적 책임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08
<표 32> 각 차원별 자기책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	112

##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분석 절차 .....	47
[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 ....	73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저금리, 저성장 기조의 지속화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금융 소비자들은 수익성 확보를 위한 투자 대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금융소비자의 수요에 의해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의 금융투자상품 개발이 확대되었고, 금융시장의 개방, 금융환경의 다변화는 이를 촉진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은 금융정보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했으며, 금융 투자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 채널을 다각화하여 금융소비자들의 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투자는 미래의 불확실한 기대수익을 위해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포기하는 경제적 선택이다. 투자위험은 손실 발생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하며, 투자 수익의 변동성을 의미한다. 금융투자상품의 본질은 투자성이고, 투자성이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높은 위험이 따르며, 위험의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의사결정에 따르는 의무, 부담, 책임을 의사결정자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자본시장법 제3조 1항; 김경환, 2015; 노형식, 2016; 나현, 2022).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명제이지만, 금융투자에서 이러한 명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법으로 정해진 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고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분쟁조정이나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과거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비율은 20~30%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수의 판례에서 금융투자자 자기책임

의 원칙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에 과실상계를 적용하거나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이유로 금융회사의 책임을 제한했기 때문이다(허세은, 2016; 강지영·최현자, 2021).

그러나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손해배상 비율이 변화하였다. 2019년 금융분쟁조정을 통해 DLF는 40~80% 배상이 결정되었고(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9.12.05), 2020년 라임 무역금융펀드, 2021년 옵티머스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투자원금 전액 반환이 결정되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0.07.01.; 2021.04.06.).

이는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계약 취소 결정이 확산될 경우, 본래 투자의 특성이나 투자자의 자기책임 인식이 소홀해지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기도 하였다(김혜미, 2022).

금융투자에서의 자기책임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2022년 정부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채무상환부담을 조정해 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제도」를 발표했을 때도 이슈가 된 바 있다. 빚을 내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청년들의 채무를 국가에서 탕감해 준다는 비난이 일었고, 이에 대해 정부가 해명을 하기도 하였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07.15.;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 2022.07.14.). 또한, 2021년 이후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민원이 급증하면서 금융투자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경각심이 확대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2016년에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회사의 완전판매가 정착될 수 있도록 판매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투자자 교육을 실시

하고 합리적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성숙하고 선진화된 금융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2021년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금융소비자의 책무를 규정하여, 금융소비자가 시장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보호 관점도 필요하지만, 금융소비자의 책임있는 의사결정 및 행동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금융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소비자의 주권과 권리를 보장받기 쉽지 않으며,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한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기책임 인식은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책임이란 스스로 선택 및 행동하게 된 일에 대해 발생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주로 발생한 결과로 인한 손실, 손해 부분에 대해 법을 근거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상당히 좁은 의미의 해석이다. 자기책임의 의미를 넓혀서 생각해 보면, 결과에 대한 책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전 과정에 거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과정과 결과를 포함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시장의 주체로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소비자학, 소비자재무 분야에서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금융소비자의 책임 자체를 주제로 한 연구보다는 금융소비자 교육, 금융소비자 주권과 권익 등을 논하는 연구에서 책임인식을 언급한 경우가 다소 존재한다. 주로 법학 관련 연구에서 금융소비자(투자자)의 자기책임 개념과 법리적 해석을 다루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책임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책임의 규범적 영역을 논의하고 있으

며, 자기책임의 영역이나 범주를 구분하거나 그에 대한 인식이나 실천을 실증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투자 과정에서 인식하는 자기책임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보자 한다. 윤리학, 법학 영역의 선행연구 및 관련 법제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인식하는 자기책임의 하위차원과 척도를 구성한 후,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학, 심리학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기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성향, 재무관리역량, 금융투자에서의 행동 특성 등을 파악하여, 금융소비자의 특성과 역량에 따라 각 차원별 자기책임 인식수준을 비교하고자 한다. 나아가 각 차원별 자기책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법을 기반으로 좁게 해석되었던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을 넓은 의미로 재개념화하고, 하위차원과 척도 구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을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금융투자 전 과정에서 각 차원별 자기책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행동적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을 넓은 의미로 재해석하고 그 하위차원과 척도를 구성함으로써, 자기책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또한, 금융투자 의사결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각 차원별 자기책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행동적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자기책임 인식을 제고하고, 자기 판단 하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금융소비

자가 건전한 금융시장 안에서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책임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재무특성과 재무관리역량, 심리적 성향, 그리고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심리적 성향은 통제위치와 조절초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Rotter(1996)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사건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 또는 통제 밖의 요인에 의존한다고 느끼는 정도를 통제(control)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개인이 환경의 힘을 개인의 힘보다 강한 것으로 인지하면 외적통제자(externals), 개인의 힘을 환경의 힘보다 큰 것으로 인지하면 내적통제자(internals)로 구분하였다. 통제는 자신이 의도한 바대로 생각을 유발시키는 힘을 의미하며, 통제를 내적통제 또는 외적통제로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 자신의 결정과 결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개인이 통제위치를 내적, 외적 통제 성향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 믿는 정도에 따라 자기책임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될 수 있고, 이는 책임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투자의사결정을 할 때, 금융소비자는 불확실성 하에서 손실과 이익에 대한 기대를 기준으로 의사결정 및 행동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때 소비자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대한 조절 지향성을 조절초점(regulatory focus)이라고 한다(오혜영, 2015; 하영원·김영두, 2011; Higgins, 1998). 조절초점은 목표 및 기준에 자신의 행동을 맞추고자 하는 과정(최성욱 외 2인, 2012)으로 금융소비자의 투자목표에 따라 개인의 동기가 달라지고, 이때 유발된 동기는 투자의사결정과정 및 자기책임 인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금융투자 의사결정을 합리적이고,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역량이 필수조건이다(김정현·최현자, 2011; 김아름·양혜경,

2016; 김범석·이성림, 2022). 재무관리역량은 금융소비자가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 태도, 지식, 기능의 측면을 포함한다. 재무관리역량은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판단과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르는 자기책임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철학, 윤리학, 교육학, 법 등 다양한 분야의 관점에 따라 책임의 개념이 다소 다르게 정의되지만, ‘자기 스스로의 결정’이라는 의미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에서 자율성(autonomy)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자율성은 자기 행동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자신이 스스로 행동 주체이고 조절자라는 신념으로 자신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Deci & Ryan, 2000). 즉, 스스로 금융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는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금융투자에서 금융소비자가 인식하는 자기책임의 하위 차원과 척도를 구성한다. 금융소비자가 인식하는 자기책임의 하위 차원과 척도를 구성함으로써, 자기책임의 개념과 범주를 정리하고, 자기책임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금융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각 차원별 자기책임의 인식수준을 비교한다. 즉, 인구사회학적 특성, 재무특성, 재무관리역량, 심리적 성향,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 수준에 따라 자기책임 인식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셋째, 금융소비자의 각 차원별 자기책임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은 주권자로서 권리 실현과 금융소비자보호의 선진

화를 위해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금융소비자가 자기책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스스로가 최소한의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성숙한 투자문화와 긍정적인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금융소비자의 책임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금융소비자가 인식하는 자기책임을 하위 차원과 척도를 구성함으로써, 자기책임을 개념과 범주를 정리하고, 자기책임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자기책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각 차원별로 금융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각 금융소비자 특성별로, 각 차원별로 자기책임 인식 제고를 반영하여 차별화된 교육 및 프로그램 전략 모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자기책임의 개념과 영역

#### 1) 자기책임의 개념

책임의 사전적 의미는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 위법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법률적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하는 것 등으로 정의된다. 이는 개념적 설명과 실천적 행위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책임의 개념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확장되어 왔기 때문이다.

책임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원래 법과 정치영역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죄(Schuld)의 의미와 법정에서 문답적 요소로 연결되는 비난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 특히, 법의 영역에서는 특정 행동으로 발생한 죄를 묻고 이에 대해 처벌받거나 보상을 해주는 것이 곧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구인회, 1999; 김태훈, 2014; 김양현 외 3인, 2005; 이양수, 2016; 이영록, 2019).

이후 책임의 의미는 도덕·윤리학으로 확장되어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판단으로 발전되었다. 또한, 산업화 이후 민주사회의 발전과 함께 책임의 의미는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실천적 개념을 포함하게 된다. 이때 책임의 의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지녀야 하는 의무(duty)를 내포한다. 이후 책임의 개념은 역할책임(role responsibility), 행위 책임(responsibility in action) 등으로 보다 구체화되었고, 책임 대상도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인류, 미래세대와 자연까지로 확대되었다(김혜진, 2018).

한편, 자기책임은 책임의 대상이 행위자 자신이고, 스스로가 선택한 행위

범주에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자기책임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자기의 행위나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적·긍정적·자발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의미한다(우리말샘, 검색일 : 2022.09.01).

자기책임은 종종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구체적으로 ‘자기가 행위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란 무엇인가?, 행위자 스스로란 어떤 의미이고, 무엇이며, 자기 스스로 한 행위에 의해 나타난 결과에 대해 어디까지를 책임의 범주로 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묻는다면,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본 절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책임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고 연구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자 한다.

## 2) 윤리 영역에서의 자기책임

### ① 책임의 의의

윤리학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규범과 도덕적 행위 및 실천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책임과 관련된 연구도 윤리학에서 주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박찬구, 2006; 변순용, 2004). 윤리와 도덕은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인간 사회의 규범을 의미할 때는 윤리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개개인의 심성 또는 덕행을 나타낼 때는 도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박찬구, 2006).

전통적 윤리학의 관점에서 책임은 잘못된 행위의 결과를 짊어지는 인과적 책임을 의미하고, 잘못된 일에 대하여 행위자가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구인회, 1999). 이 때, 책임의 개념은 인간의 자유로운 자기결정 가능성과 연결되고, 이는 오랫동안 논의되는 주제로 자유의 개념과 함께 다루어졌다(변순용, 2004). 또한, 자유로운 활동과 선택의 보장은 책임을 진

다는 전제하에 행해졌으며, 자유의 보장은 인간 존엄성과 주체성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것을 도덕적 의무로 전제한다는 맥락이 지속되었다(김태훈, 2014; 김혜진, 2018; 안건훈, 2003; 정용교, 2008). 다시 말해서, 윤리에서의 자기책임은 의지의 자유, 결정의 자유가 필연조건이자 전제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구인회, 1999; 권수현, 2008; 김양현 외 3인, 2005; 이양수, 2016; 박찬구, 2006; 변순용, 2004; 안건훈, 2003; 이영록, 2019; 최호진, 2018).

## ② 책임의 유형 구분

전통적인 책임 개념은 사회 및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책임의 대상, 책임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변화하고, 새롭게 정의되며,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철학자들은 책임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철학자에 따라 책임의 유형을 다르게 구분하였다(<표 1>).

법철학자이자 형법학자인 하트(H. L. A. Hart, 1968)는 책임(responsibility)을 인과관계와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보고, 책임을 역할책임(role responsibility), 인과 책임(cause responsibility), 부담 책임(liability responsibility), 능력 책임(capacity responsibility)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역할책임은 수행해야 할 책임의 의미로 사회생활 속에서 떠맡게 되는 과제, 계약, 역할 등과 관련된 책임을 의미하고, 인과(원인)책임은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상태에 대해 인과적으로 원인이라는 것에 의해 성립되는 책임으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부담책임은 자기가 야기한 피해가 아니어도 보상해야 할 책임, 능력책임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만 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행위를 실현할 수 있는 책임으로 자유의지와 판단력의 능력을 전제로 하고 도덕 책임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김양현 외 3

인, 2005; 변순용, 2004; 이영록, 2019).

요나스(H. Jonas, 1979; 1987)는 책임의 유형을 법률적 책임과 수행해야 할 책임으로 구별하였다. 법률적 책임은 사후에 지는 도의적 책임으로 자신이 하는 일 또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수행해야 할 책임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의무와 같은 개념으로 자신의 권한 내에 있으며 자신의 행동에 따라 결과가 변화하므로 저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요나스는 책임의 종류를 상호 간의 책임과 일방적인 책임, 자연적인 책임과 계약에 의한 책임, 스스로 선택한 책임과 선택하지 않은 책임, 특수한 책임과 총체적 책임으로 분류하고, 인과적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을 넘어 도덕적 책임으로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구인회, 1999에서 재인용).

랭크(Lenk, 1987; 1992)는 책임을 4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과제 및 역할책임, 행위(결과) 책임, (보편적인)도덕적 책임, 법적 책임이다. 먼저, 과제 및 역할책임은 과제 또는 역할이 특정 직업, 계약, 사회제도와 결합하여 그에 대한 책임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와 관련된 개념이다. 행위(결과)책임은 행위와 직접 관련된 개념으로 행위의 적극적 의미와 소극적 의미, 작위와 부작위를 모두 포함한다. (보편적인)도덕적 책임은 하위 개념을 갖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상황에 의해 야기되는 도덕적 행위책임, 행위의 결과나 행위의 부작위에 대한 간접적인 도덕적 행위 책임, 자기책임, 계약적 또는 형식적인 의무들의 수행에 대한 책임, 제도나 법인체들의 도덕적 책임이 있다(김양현 외 3인, 2005; 변순용, 2004에서 재인용).

랭크는 책임 개념의 특징으로 역할 및 과제책임, 행위결과 책임, 보편도덕적 책임은 동등한 차원이 아닌 위계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과제 및 역할책임은 도덕적 책임의 영역에 포함되며, 행위(결과) 책임은 대체로 도덕적인 책임의 영역에 속하고, 과제 및 역할책임은 넓은 의미로는 행위책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김양현 외 3인, 2005; 변순용, 2004).

이처럼 책임의 유형은 학자에 따라 다소 다르게 구분되고 있지만, 크게 보면 법과 관련된 책임, 도덕적·도의적 책임, 역할에서 부여되는 책임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표 1> 윤리 영역에서 구분한 책임의 하위영역

저자	내용	
하트(H. L. A. Hart, 1968)	역할책임	· 수행해야 할 책임 의미 · 과제, 계약, 역할 등과 관련된 책임
	인과책임	· 법적 도의적 책임 의미 ·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상태에 대해 인과적으로 원인이 되는 것에 의해 성립되는 책임
	부담책임	· 자신이 초래한 피해가 아니어도 보상할 책임
	능력책임	· 누군가 책임지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행위를 실현할 수 있는 책임 · 자유의지와 판단력의 능력을 전제
요나스(H. Jonas, 1979, 1987)	법률적 책임	· 사후에 지는 도의적 책임 · 자신이 하는 일 또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의미
	수행해야 할 책임	· 의무와 같은 개념 · 자신의 권한 안에 있고, 자신 행동 결과에 의해 변화되므로 갖는 책임
랭크(Lenk, 1987, 1992)	과제 및 역할책임	· 과제 또는 역할이 특정 직업, 계약, 사회제도와 결합한 책임 개념
	행위 (결과) 책임	· 행위와 직접 관련된 책임 개념으로 적극적, 소극적 의미와 작위, 부작위 의미를 모두 포함
	(보편적인) 도덕적 책임	· 직접적인 도덕적 행위 책임, 간접적인 도덕적 행위 책임, 자기책임, 계약 또는 의무 수행에 대한 책임
	법적 책임	· 제도나 법단체들의 책임

### 3) 법 영역에서의 자기책임

일반적으로 사람들 간에 어떤 갈등이 발생하면 행위의 결과에 대해 법을 사용하여 책임을 묻게 된다(김태훈, 2014). 즉, 법적 책임은 과실 책임을 기본으로 한다(이양수, 2016). 법에서 책임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인데, 책임을 어떻게 정의하고, 책임의 대상(원인제공자)을 누구로 보고, 피해의 범위를 어떻게 보는지 등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지고, 처벌, 배상, 보상 등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자기책임의 개념도 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본원리이다. 기본원리로 작용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처럼 일관되게 이행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법에서의 ‘자기책임의 원칙(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은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결정·선택·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김경환, 2015; 나현, 2022; 이금옥, 2021; 이현경, 2015).

자기책임의 원칙은 법령상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법 조문과 선행연구,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이에 선행연구와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자기책임의 원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 ①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

헌법에서 자기책임의 원칙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김강운, 2005). 그러나 자기책임의 원칙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의 한계 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혹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을 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칙은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자기결정권과 더불어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인간의 존엄성을 반영하고 있는 헌법상의 원리이며,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 되는 원리이다(강지영·최현자, 2021; 김종승, 2022; 박제인, 2015; 채동현, 2015; 최민수, 2016;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2011헌바99 전원재판부; 선법재판소 2013. 5. 30. 선고2012헌바15전원재판부).

구체적으로 자기책임의 원칙과 자기결정권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한 판례는 <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2002헌가27 전원재판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자기책임의 원리’는 이와 같이 자기결정권의 한계 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중략)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후략)”*

헌법에서 자기책임의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자기결정권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좁은 의미로

는 행복추구권의 일부로, 넓은 의미로는 포괄적 기본권에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전제로 스스로 결정한 것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의 범위는 스스로 결정한 결과나 스스로 결정한 결과와 상관있는 부분만을 의미함으로써, 이는 책임의 한정 원리 기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강지영·최현자, 2021; 김종승, 2022; 나현, 2022; 박제인, 2015; 이금옥, 2021; 이현경, 2015; 채동현, 2015; 최민수, 2016).

## ② 민법상 자기책임의 원칙

민법에서 상정하는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추상적인 인간을 전제로 한다. 민법에서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을 기본원리의 토대로 삼고 있다(김종승, 2022). 민법에서도 자기책임의 원칙은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통해 민법에서 자기책임의 원칙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알아볼 수 있다(강지영·최현자, 2021; 권대우, 2007; 김종승, 2022; 나현, 2022; 박제인, 2015; 최민수, 2016; 대법원 2014. 8. 21. 선고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문).

*“우리의 사법질서는 사적자치의 원칙과 과실책임의 원칙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데, ‘사적 자치의 원칙’이란 개인이 자신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과실책임의 원칙’은 개인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아니한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

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개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되고,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도 당사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나 손실을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할 것이다. 사적 자치의 원칙을 근거로 한 자기결정, 자기책임의 원칙은 어느 경우에도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절대적 명제는 아니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신의성실, 권리남용의 금지, 사회질서 등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이처럼 대법원 판례문을 통해 자기결정권과 자기책임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적 원칙이고, 이는 사법 영역에서도 존중 및 적용되어 기본 원칙이 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자기책임의 원리는 자기결정권의 한계로 기능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기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개인이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대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적극적 의미에서의 자기책임과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과 결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소극적 의미의 책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김중승, 2022; 박제인, 2015; 최민수, 2016).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자기책임 원칙의 정의는 적극적 의미와 비슷하다.

또한, 판례에서는 자기책임의 원칙은 절대적 명제가 아니며, 신의성실, 권리남용의 금지, 사회질서 등을 위하여 자기책임 원칙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2조)은 법률관계를 형성할 때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민법의 기본 원칙이다. 만약 계약 당사자들이 자기 결정에 기초한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게 되면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다. 그리고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자기결정이 침

해된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 즉, 권리남용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졌거나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의 위배로 맺어진 계약은 자기책임 원칙의 한계로 무효화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자기책임 원칙의 제한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만, 사회가 변화, 발전해 감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도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김종승, 2022; 권오승, 2019; 나현, 2022).

### ③ 소비자기본법상 책임의 의의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책임을 말할 때는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소비자 책무를 기준으로 삼는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정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 1조).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된 소비자 책무를 살펴보면, 소비자는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올바르게 선택하고,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고,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 습득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통해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5조).

책무(accountability)란 일반적으로 직무에 따른 책임이나 임무를 의미한다(한국소비자원, 2008). 책무는 책임과 유의어이지만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책무는 특정인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보고, 설명, 해명해야 하는 것이라면, 책임은 특정인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으로 법적인 규정, 계약, 약속 등을 하지 않았다면 보고, 설명, 해명할 필요가 없다(김규태, 2001).

즉, 소비자 책무는 소비자기본법이 소비자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의미하며, 소비자라면 이를 수행할 책임이 부담되어 진다. 단, 이때의 책임은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 간접적인 의무가 강조된 개념이다. 반면, 자기책임은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본 원칙으로 계약, 약속 등에 의해 수행할 책임이 부담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책임은 법적으로 강제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법적 의무로 구체화된 개념을 나타낸다(김민정, 2017).

#### 4) 소비자로서의 자기책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나는 책임의 개념을 살펴보면, 대체로 소비자주권, 소비자권리를 주요 주제로 다룬 연구에서 책임의 개념 및 내용을 언급하였다(고형석, 2020; 김연숙, 2008; 김성천, 2012; 맹수석, 2018; 서정희·이기춘, 1991; 성경희, 2012; 허경옥, 1998). 이와 같은 연구들은 대체로 소비자주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환경과 소비자권리 보장이 전제되어야 하고, 권리가 있는 곳에 책임도 존재하므로 권리와 책임을 함께 다루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성영애, 2015).

한편, 소비자책임은 소비자교육에서 주로 다루어졌는데, 그 중요성이나 인식에 대한 강조는 소비자권리 비해 적게 언급되었다(서정희·이기춘, 1991; 장연주 외 2인, 2018; 허경옥, 1998). 또한, 소비자책임을 다루고 있는 연구에서는 소비자책임을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보다는 구성요소를 통해 소비자책임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먼저, 허경옥(1998)은 소비자책임을 소비자에게 기대되는 행동유형인 소비자역할에 대응하는 책임이라 제시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생활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소비자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책임, 소비윤리의식, 부당

거래 등에 대해 시정·고발할 책임, 합리적 소비생활을 실천할 책임으로 책임요소를 구성하였다. 이 중에서도 소비복지증진 실현을 위해 합리적인 소비생활의 책임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권지연(2007)은 소비자책임을 자신의 소비를 통해 사회에 참여해야 할 책임, 합리적인 소비를 실천해야 하는 책임, 정당한 의사표시 또는 소비자저항을 할 책임, 소비자역할을 인식할 책임, 상품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책임으로 구분하였다. 성경희(2012)는 기존의 소비자 책임론들이 권리와 의무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의 규정을 강조하고자 소비자책임을 소비자 의무로 정의하고, 소비자 의무의 구성요소로 합리성(rationality), 경제성(economical efficiency), 책임성(responsibility)을 설정하였다.

모운중 외 3인(2014)은 소비자책임이란 바람직한 소비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자의 의무사항이라고 정의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생활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소비자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책임, 소비윤리의식, 부당거래 등에 대해 시정·고발할 책임, 합리적 소비생활을 실천할 책임, 소비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탐색할 책임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Gordon & Lee(1977; 허경옥, 1998, 모운중 외3인, 2014 재인용)는 소비자의 역할과 기능을 잘 인식할 책임, 효과적으로 실천할 책임, 자원을 낭비하지 않을 책임, 노동시장에서 착취당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을 책임, 모든 거래에서 정직할 책임, 부정한 일에 대해 항의할 책임으로 소비자책임을 구성요소를 언급하였다. Stampfl(1979; 허경옥, 1998 재인용)은 첫째, 소비자는 개인이나 가게뿐만 아니라 사회의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장선택을 하여야 한다. 둘째, 개인이나 가게의 선택이 사회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소비자 정보를 참조하여 균형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셋째, 소비자는 상품사용에 따른 물리적 위험을 이해하고 사용하지

시서 및 바람직한 사용으로 다른 소비자의 물리적, 심리적, 환경적 안전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소비자는 소비자의 욕구, 만족 불만족에 대한 표현을 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업과 정부에 정직하고 가치 있는 제언을 하여야 한다고 했다.

1986년 국제소비자기구(CI)는 소비자권리 개념 규정하고, 소비자행동윤리 현장에 소비자책임을 다섯가지로 제시하였는데, 비판적 시각을 가질 책임, 자신의 행동이 다른 시민 또는 국제사회에 불이익을 받게 될 집단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여해야 할 사회적 책임, 생태계보호의 책임, 그룹을 형성하여 행동해야 할 단합의 책임이다(성경희, 2012; 허경옥, 1998 재인용).

이상 소비자학에서 소비자책임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바람직한 소비생활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 차원에서 책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행동적 측면, 실천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는 보호가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시장에서 권익을 실현하는 시장참여자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이다. 이에 소비자가 스스로의 주권 실현과 권익 증진을 위해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역할 수행을 강조하는 것이다.

<표 2>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소비자 책임의 영역

저자 및 기관	내용
Gordon & Lee (1977)	(1) 소비자의 역할과 기능을 잘 인식할 책임 (2) (1)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실천할 책임 (3) 자원을 낭비하지 않을 책임 (4) 노동시장에서 착취당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을 책임 (5) 모든 거래에서 정직할 책임 (6) 부정한 일에 대해 항의할 책임
Stampfl (1979)	(1) 소비자는 개인이나 가게뿐만 아니라 사회의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장선택 할 책임 (2) 개인이나 가게의 선택이 사회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p>미칠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소비자정보를 참조하여 균형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할 책임</p> <p>(3) 소비자는 상품사용에 따른 물리적 위험을 이해하고 사용지시서 및 바람직한 사용으로 다른 소비자의 물리적, 심리적, 환경적 안전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p> <p>(4) 소비자는 소비자의 욕구, 만족, 불만족에 대한 표현을 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업과 정부에 정직하고 가치있는 제언을 할 책임</p>
Davis (1979)	<p>(1) 소비자는 필요시에 기업·정부에게 현명하고 가치 있는 제언을 하고, 불만을 표시할 책임</p> <p>(2) 소비자는 지시책자·사용설명서·표찰에 있는 정보를 사용할 책임</p> <p>(3) 소비자는 청구서에 대해 지불해야 하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그 내용을 읽고 이해해야 할 책임</p>
허경옥 (1998)	<p>(1) 소비자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책임</p> <p>(2) 소비윤리의식, 부당거래 등에 대해 시정·고발할 책임</p> <p>(3) 합리적 소비생활을 실천할 책임</p>
권지연 (2007)	<p>(1) 참여에 대한 책임</p> <p>(2) 합리적 소비를 할 책임</p> <p>(3) 정당한 의사표시 또는 소비자저항을 할 책임</p> <p>(4) 소비자역할을 인식할 책임</p> <p>(5) 상품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책임</p>
모운중 외 3인 (2014)	<p>(1) 정보활용의 책임</p> <p>(2) 소비윤리의 책임</p> <p>(3) 정보탐색의 책임</p> <p>(4) 시정·고발의 책임</p> <p>(5) 합리적 소비책임</p>
국제소비자기구 (소비자행동 윤리현장)	<p>(1) 자신이 사용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경각심과 의문을 가져야 할 비판적 시각을 가질 책임</p> <p>(2) 자신의 행동이 공정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행동력을 보일 책임</p> <p>(3) 자신의 행동이 다른 시민 또는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회적 책임</p>

	<p>(4) 희소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을 생태계보호의 책임</p> <p>(5)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강화하기 위해 행동해야 할 단합의 책임</p>
<p>소비자기본법 제5조 (소비자의 책무)</p>	<p>(1)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할 책무</p> <p>(2)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p> <p>(3)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책무</p>

\*권지연(2007), 성경희(2012), 이기춘&김외숙(1997), 허경옥(1998). 의 내용을 표로 요약, 재편집

## 2.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 1)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에서 계약을 통해 법률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에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은 주로 법률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다루고 있다(강지영·최현자, 2021; 고흥석, 2015; 김경환, 2015; 김종승, 2022; 노형식, 2016; 금융감독원 브리핑 자료, 2016.07.05.).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의 원칙은 모든 계약에 적용되지만, 특히 금융거래 계약의 목적을 투자로 보는 경우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김경환, 2015). 이는 투자성이 갖는 본질적인 특징 때문으로, 투자성이란 원금 또는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위험 가능성 있는 것을 의미한다(자본시장법 제3조 1항). 즉,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성으로 인해 원금을 손실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본질적으로 갖고 있고, 투자자는 투자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원금손실에 대해서는 타인이 아닌 투자자 본인이 감수 및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강지영·최현자, 2021; 고흥석, 2015; 김경환, 2015; 노형식, 2016).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은 금융상품 거래계약에서 기본적 원리로서 적용되며, 투자를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이익과 부담하게 될 위험 등을 스스로 판단하여 궁극적으로 거래 여부 및 거래 내용을 결정하고 거래 결과에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고흥석, 201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06.03.). 즉, 자기책임의 원칙은 금융소비자가 의사결정을 시작하면서부터 투자가 진행되는 동안, 의사결정 후의 결과까지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금융소비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금융회사와 계약을 형성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

용의,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헌법재판소 1991. 6. 3. 89헌마204)할 수 있는데, 이는 민사법의 일반 원리인 사적 자치의 원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계약은 쌍무계약이고, 계약의 주체자는 계약에 따라 일을 행하거나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각자가 행해야 하는 의무를 법에 의해 갖게 된다. 또한, 권리와 의무이행에 따른 책임부담의 주체가 되며,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기반으로 법률관계 형성을 자신의 자기결정에 따라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적 자치와 자신의 결정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과실책임의 원칙을 적용받게 되며, 이에 따라 자기책임 원칙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만약 금융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법의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 및 고의·과실을 고려하여 피해자(채권자)와 가해자가 정해지고, 문제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거나 손해에 대해 일부를 부담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문제에 대해 자기책임을 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때, 금융소비자에게 법의 규정에 기반하여 자기책임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된다면, 금융시장의 복잡성과 정보의 비대칭성, 금융소비자의 제한된 합리성 등의 특징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김종승, 2022). 또한, 금융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는 온전히 금융소비자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 문제를 모두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에 위치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는 부당한 희생을 강요당하게 될 수도 있다.

하여,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의 원칙도 어느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절대적 명제는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금융거래 전반에 관한 자기책임의 원칙을 제한하고 있으며, 사법적 법률관계, 행정상 제재, 형사상 벌칙, 계약자유의 원칙 제한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있는 법률을 적용하여 제한하고 있다. 또한, 현재 법률상 근거가 있거나 신의성실, 사회질서 등 민사법 원리에 의해서도 자기책임의 원칙은 수정될 수 있다(김종승, 2022; 권대우, 2007; 나현, 2022; 박제인, 2015; 최민수, 2016).

## 2)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자기책임

### ①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자기책임의 의의 의미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하 금소법)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에 맺어지는 계약관계 또는 금융거래 계약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규정한 법이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책무, 국가 및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금융시장 관련 법과 다르게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를 법에 명시했다는 점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안수현, 2020).

금소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했다는 것은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의 지위를 무조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시장의 구성원이자 주체자로 보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금소법에서 이상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책임은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바탕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거래당사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하며, 필요한 금융역량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선진화된 시장환경의 형성과 확대의 주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전한덕, 2021; 최현민, 2021).

한편,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가 갖는 특수성, 제반환경 등의 영향으로 금융회사에 비해 다소 불리한 입장에 위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소법에서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의 원칙은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 지켜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원칙만을 강조한다면, 제도상 금융소비자보호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원칙 적용을 느슨하게 한다면,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야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김중승, 2022; 최승재, 2008). 그러므로 금소법은 금융소비자가 시장거래의 참여에 저해되지 않고, 금융시장의 주체자이자 거래 당사자로서 건전한 시장문화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책임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거래는 계약에 의해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게 되고, 발생한 의무와 권리는 계약을 작성한 당사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예를 들어, 금융거래를 통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계약을 맺은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의무는 금융회사에게는 권리가 되고, 금융소비자에게 권리는 금융회사에게는 의무가 된다. 즉, 금융소비자가 거래행위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의무이행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금융회사가 계약관계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의무와 책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금소법에서는 금융회사의 책무(금소법 제10조)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를 모두 명시하였다. 그리고 금소법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금융소비자의 책무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금융회사가 신의성실의무(금소법 제14조)와 거래의 전과정 동안의 의무이행을 기본적으로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은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김경환, 2015; 안수현, 2020; 서울고법 2014. 6 .19. 선고 2012나 82321판결; 서울고법 2015. 2. 12. 선고 2013나2021183판결).

만약 금융회사가 의무이행을 위반할 시에는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원칙은 제한될 수 있다(김민정, 2017; 김종승, 2022). 특히, 금융소비자의 기본권리가 침해되고, 금융소비자가 거래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과 부담 등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책임보다는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더욱 유의미하게 고려될 수도 있다.

## ②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기본법의 책무와 권리

금소법은 소비자기본법을 참고하고 반영하여 법령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의 책무는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소비자의 책무와 거의 비슷하다. 다만, 소비자기본법의 권리와 책무는 일반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금융소비자에게도 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금소법은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으로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책무에 대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김민정, 2017; 김종승, 2021; 안수현, 2020).

금소법과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권리와 책무의 내용은 <표 3>과 같다.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살펴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책무 조항을 2개 제시하였지만, 소비자기본법에서는 3개의 조항을 규정했는데,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의 역할에 대한 책무 조항을 하나 더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8대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금소법에서는 금융판매과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2개 권리를 제외한 6대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안전, 정보, 의견, 보상, 교육, 단체의 권리는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선택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는 금소법에서 제외되었다.

<표 3>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기본법의 책무와 권리

	금융소비자보호법	소비자기본법
책무	<p>1.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한다.</p> <p>2.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p>	<p>1.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한다.</p> <p>2.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3.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p>
권리	<p>1.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p> <p>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p> <p>3.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p> <p>4.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p> <p>5.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p> <p>6.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p>	<p>1.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p> <p>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p> <p>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p> <p>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p> <p>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p> <p>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p> <p>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p> <p>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p>

### 3)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원칙의 특수성

금융거래에서 자기책임의 개념을 적용할 때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금융투자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상품의 내용을 이해가 어려우며, 상품의 정보를 모두 알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힘들다는 특성이 있다. 즉,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관련된 정보의 접근성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 및 이해에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동등한 지위를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상민, 2020).

만약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자신이 독점하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 결국 계약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대등관계가 확보되지 않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거래계약을 맺은 금융소비자에게 자기책임의 원칙을 적용할 근거가 없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제공한 정보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잘못된 판단 또는 오류 및 착오에 의한 판단을 하여 투자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금융소비자 자신이 판단과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의 귀속을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김경환, 2015; 맹수석, 2013; 성희환, 2009; 최현민, 2021).

금융소비자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6가지 판매원칙을 법 조항으로 명시해 놓고 실행하고 있다. 금소법에 명시되어 있는 6가지 판매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이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03.24)

법 조항을 각각 살펴보면, 적합성의 원칙은 투자자가 일반금융투자자인지

전문금융투자자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 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법 17조). 적정성 원칙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법 18조). 설명의무는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법 19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조항은 금융상품 판매 시 판매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고(법 20조), 부당권유 금지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 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법 21조). 마지막으로 허위·과장광고 금지는 금융상품 또는 판매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 시에는 필수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금지행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법 22조).

#### 4)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관련 선행연구

##### ①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관련 연구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는 주로 법을 기반으로 판례를 통해 다루고 있다(고홍석, 2015; 김경환, 2015; 김종승, 2022; 박제인, 2015; 성희활, 2009; 채동현, 2015; 최민수, 2016). 반면에,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접근한 자기책임 관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의 특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사후 피해구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책임’ 개념을 연구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지영·최현자(2021)는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해 연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약 63%만이 원금손실에 대한 책임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 학력, 금융자산의 규모, 펀드투자의 자발성 여부, 위험감수성향은 자기책임 인식수준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세훈·반주일(2021)은 금융지식이 자기주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금융지식이 많을수록 판매자와 투자자의 책임 배분에서 투자자의 책임이라고 판단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자기책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정(+)의 영향을 주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투자의 자기책임을 스스로에게 부여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는 자기책임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로서의 의무 또는 권리 실현을 위해 스스로 책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김민정(2017)은 펀드에 가입하기 전 단계, 가입하는 단계, 가입 후 유지 및 관리 단계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가입 전 책무로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기본 지식, 펀드투자에 대한 결정의 자발성을 분석하였다. 결과를 보면, 수익률보다 무조건 원금 보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펀드 투자에 가입한 경우는 48.4%로 투자의 기본 지식과 실제 투자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였고, 자발적으로 투자에 참여한 경우도 2%밖에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투자 가입단계에서는 솔직한 서류 작성, 비대면 가입 때 투자설명서 확인에 대한 책무를 확인한 결과, 투자 가입 시 서류를 솔직하게 작성한 조사자는 87.3%, 비대면 가입 시 투자설명서를 읽은 경우는 38.2%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입 후 유지 및 관리 단계에서는 운용보고서를 제공받고 확인하는 금융소비자는 45.3%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투자나 펀드투자에 대한 지식, 펀드용어에 대한 이해도, 교육경험은 금융소비자가 책무이행을 성실하게 하는데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주요 변수로 조사되었다.

한편,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권리의식과 책임의식 수준을 살펴본 장연주 외 2인(201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험소비자의 권리의식과 책임의식은 대체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의사결정 책임에 대한 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보험소비자의 권리의식은 책임의식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권리의식은 지나치게 높고, 책임의식수준이 낮은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 ②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의 조작적 정의와 하위개념

앞서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책임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자기책임은 책임의 대상자를 자신으로 한정하고, 행위를 선택하고 실천하는 대상도 자신으로 한정하며, 책임을 지는 범위는 행위자 자신이 선택한 행위와 선택하지 않을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자기책임의 개념에서 자유의사, 자기선택은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다.

법 영역에서의 책임은 스스로 결정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보상 또는 처벌을 받는다는 개념이지만, 도덕·윤리적, 사회적, 역할 등의 의미로 확대되어 포괄적 의미로 사용된다. 책임은 기본원리로서의 개념적 의미와 제도·질서를 수행하는 실천적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으며, 개인의 의사결정에서도 과정과 결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한편, 금융거래에서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계약을 통해 관계를 형성한다. 계약을 맺을 때는 거래당사자 양측의 도덕·윤리의 규범적 책임이 전

제되고,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의무와 권리에 대한 책임, 계약을 유지하며 지켜야 하는 실천적·제도적 책임도 발생한다. 계약관계는 일반적으로 민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적 책임을 따르게 된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계약에 관련된 규범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법에 의한 강제적, 손해배상 책임도 감당해야 한다. 즉,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에서 법적 책임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자기책임의 개념은 법에서 의미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 행위의 실천적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자기 책임을 논할 때는 법과 관련된 책임의 개념으로 설명되지만, 책임의 의미는 규범에서 역할의 범위까지 더 넓은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자기 책임을 금융소비자가 금융시장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도덕의식을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스스로 선택한 것을 실천, 행동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윤리 영역에서는 책임의 유형을 법적 책임, 역할책임, 도덕적 책임, 부담책임 등으로 구분하고, 소비자 관련 연구에서는 책임의 유형을 도덕적 책임, 법적 책임, 역할책임, 수행해야 할 책임 등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소비자책임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경제적 책임, 사회·환경에 대한 책임, 자선적 책임, 합리적 소비책임, 시정·고발 책임 등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 된 역할책임과 수행 책임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시장에서 갖는 지위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된 구분기준으로 금융소비자 자기책임의 하위차원을 나누어보면, 크게 도덕 책임, 역할책임, 법적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금융소비자의 도덕 책임은 자유의지, 자유선

택을 바탕으로 이성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양심, 도덕적 원칙 및 사회적 규범 지키려고 하는 동기 또는 인식을 의미한다. 다만, 도덕 책임은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다른 책임의 의미와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도덕 책임의 범위는 행위가 법에 의한 제재를 받지 않지만,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는 제재를 받게 되는 부분으로 정한다.

역할책임은 금융소비자의 주권 실현과 금융시장참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따르는 책임을 의미한다. 역할책임은 개인이 맡게 되는 과제 또는 역할이 계약, 제도와 결합하며 발생하는 부분과 이를 수행하며 맡게 되는 실천적 책임과 관련이 있다. 또한, 역할책임은 질서, 제도를 준수하는 실천적 행동을 포함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는 역할책임의 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적 책임은 자신이 선택한 행위의 결과를 짚어지는 인과적 의미, 제도 또는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책임의 개념을 나타낸다.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거나 법적 제한 및 벌금 등이 발생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법적 책임은 행하지 않으면 부당한 위치에 처하며, 강제성을 가지는 개념으로 가장 좁은 의미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정리한 금융소비자 자기책임의 개념과 유형은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의 개념과 하위개념

구성내용	정의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 금융소비자는 금융시장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도덕의식을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스스로 선택한 것을 실천, 행동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책임)
도덕 책임	- 자유의지, 자유선택을 바탕으로 이성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도덕원칙 및 사회적 규범을 지키려고 하는 동기 또는 인식
역할책임	- 금융소비자의 주권 실현과 금융시장참여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따르는 책임
법적 책임	- 자신이 선택한 행위의 결과를 짊어지는 인과적 의미와 제도 또는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책임

### 3.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관련 변수 고찰

#### 1) 심리적 성향 변수

##### ① 통제위치(Locus of Control)

자기책임은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자기 스스로의 결정은 외적 동기보다는 내적 동기에 의한 선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내적, 외적 동기를 설명하는 통제위치 성향은 자기책임 인식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통제위치의 개념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사건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설명하거나, 반대로 통제 밖의 요인에 의존한다고 느끼는 정도를 설명한다(Rotter, 1966). 또한, 한 개인이 그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 그 개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Greeberger et al., 1989). Rotter(1966)는 어떤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개인이 해석을 할 때 개인의 신념체계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때 개인의 신념체계를 통제위치(Locus of Control)라고 하였다.

통제위치는 한 쪽은 내적 통제개념으로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상관없이 어떤 강화나 보상은 자신의 행위이거나 노력의 결과로 인한 것으로, 개인들은 그들의 삶이 그들 자신의 결정과 행동의 결과라고 믿는다. 반면, 다른 한 쪽은 외적 통제개념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한 결과는 자신의 행위나 노력과는 무관하고,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운, 기회 등과 같은 개인의 통제 밖에 있다고 믿는다(이길환 외 2인, 2012; 박주영·서재범, 2010).

개인이 통제위치를 내·외적 통제 선상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 믿는 정도에

따라 외재론자(Externals)와 내재론자(Internals)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내적통제 위치를 가진 개인은 활동적이며, 노력 지향적이고, 성취 지향적, 독립지향적 성격을 갖고, 외적통제 위치 성향의 개인은 문제해결에 냉소적이며, 소극적이고, 의존적이며, 외부의 힘에 쉽게 굴복하는 성격을 가진다(Rotter, 1966). 또한, 내재론자는 스스로 결정하여 행동하는 일에 대해 더 높이 평가하는 반면, 외재론자는 기회나 운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rull & Karabenick, 1975).

통제위치와 책임인식의 관계를 살펴본 Brewin & Shapiro(1984)는 Rotter의 통제위치 척도와 긍정적,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의 속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Rotter의 척도는 주로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과는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동석·조건상(2019)은 내적동기와 책임감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내적동기와 역할인식, 개인역할도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고미순(2020)의 연구에서는 내부통제성이 높을수록 진로선택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적극 받아들이고, 타인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진로탐색 행동을 자발적이며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반면, 외부통제성이 강한 사람은 책임회피 성향이 나타났다. 박주영·서재범(2010)은 금융지식, 소득수준이 높고 외적통제가 강한 성향은 내적통제가 높은 성향에 비해 책임있는 재무관리행동을 적게 나타냈다. 또한, 한국은 금융지식이 책임있는 재무관리행동에 영향력이 없었지만, 통제위치가 책임있는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통제위치가 책임인식과 유의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에 통제위치가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 ② 조절초점(Regulatory Focus)

금융소비자는 금융투자상품 의사결정을 할 때, 위험에 따른 손실과 이익에 대한 기대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금융소비자는 개인의 조절초점 성향에 따라 투자의사결정 기준으로 삼고 이익 달성 또는 손실회피 중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조절초점이란 금융소비자의사결정 또는 행동에 대한 조절 지향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태도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를 가리킨다(강영애·최승담, 2016; 오혜영, 2015). 조절초점은 Higgins(1998)에 의해 제안된 이론으로 동일한 목표를 두고 개인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 동기체계로 행동을 맞추고자 하는 과정으로 인간의 동기와 정서를 설명하는 이론이다(김소연 외 2인, 2021; 성창훈·박상혁, 2016; 오혜영, 2015; 하영원·김영두, 2011).

사람들의 자기조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작용하는데, 향상초점(promotion focus)과 예방초점(prevention focus)이 있다(김소연 외 2인, 2021; 성창훈·박상혁, 2016; 안서원·안광호, 2015; 오혜영, 2015; 윤태호, 2019; 하영원·김영두, 2011; Higgins, 1997). 향상초점 성향은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규제하는 방식으로, 성장과 나아감(발전), 긍정적인 결과를 추구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놓치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인다. 또한, 향상초점 성향은 성장의 요구, 열망, 이상 그리고 이익 달성을 강조하는 사고방식에 주의하는 경향이 있고, 보상과 같은 잠재적 이익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반면, 예방초점은 회피 측면을 강조하고, 실패를 회피하며 안전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려는데 초점을 맞춘다. 예방초점 성향은 안전에 대한 욕구를 바탕으로 손실이나 실패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에 민감

하여 손실을 피하기 위해 ‘억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즉, 항상초점은 개인의 희망, 포부, 갈망 등을 반영한 이상적인 자아(ideal self)에 초점을 맞추고 변화에 수용 수준이 높고, 예방초점은 책임과 책무가 반영된 당위적 자아(ought self)에 초점을 맞추고 안정성을 선호한다. 다만, 예방초점과 항상초점은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므로 상황에 따라 두 초점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윤태호, 2019; Higgins, 1997). 조절초점은 오랜 기간 사회화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성격이나 성향처럼 정형화되기도 하고, 특정한 상황에 의해 서로 다른 형태의 조절초점을 일시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윤태호, 2019; Liberman, Idson, & Higgins, 2005).

조절초점과 금융투자상품 의사결정 및 행동에 관해 연구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항상초점을 가진 금융소비자가 예방초점을 가진 금융소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혜영, 2015; 천성용·윤효식, 2014; 하영원·김영두, 2011; Higgins, 1997).

조절초점과 자율성 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지환·전무경(2022)의 연구에서 항상초점은 주도적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예방초점은 주도적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성장훈·박상혁(2016)은 조절초점이 개인의 과제수행에 대한 동기 수준을 예측 및 강화시키는 선행변수(Han et al, 2005; 재인용)라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항상초점은 내적인 동기를 예측하였고, 예방초점은 외적인 동기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볼 때, 금융소비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조절초점 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동기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고, 이때 유발된 동기는 금융 의사결정 및 자기책임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2) 재무관리역량(Financial Competency)

재무관리역량은 금융투자 의사결정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 개인 또는 가계재무에 관련된 지식이나 이해를 포함하는 재무이해력(Financial Literacy)의 개념을 포함하며, 금융 의사결정을 포괄하는 실천적 개념이다(김민정 외 2인, 2021; FINRA, 2009). 또한, 재무관리역량은 재무환경 및 금융환경에서 소비자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도 내포하고 있다(김민정 외 2인, 2021; 김정현·최현자, 2011; 김창이·황덕순, 2016).

김정현·최현자(2011)의 연구에서 재무관리역량이란 특정 맥락(금융환경)에서 소비자가 금융소비자로서 금융시장에서 적절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변화에 주체적으로 적응하며 자신의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서, 소비자의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기능이 결합되어 건전한 재무관리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있는 기제라고 정의하였다.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무관리지식 역량은 금융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금융 관련 사실에 대해 정확한 인식과 올바른 이해를 의미한다. 재무관리태도 역량은 특정 영역에 있어서 준비된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으며, 가치, 동기, 신념, 자신감 등을 함축한 용어로 태도를 사용했다.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에 대한 올바른 태도, 자신의 금융 의사결정에 대한 자신감 및 확신, 금융 복지를 추구하는 동기나 학습 의욕까지 포함한다. 재무관리기능 역량은 태도와 지식을 적용한 것과 관련된 영역인데, 기술, 행동, 실천적 영역 등의 말들을 내포하는 의미로 기능을 사용했다. 금융 의사결정과정과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행동,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능을 포함 내포한다(김정현·최현자, 2011; 박형준, 2021).

재무관리역량은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자주적인 의사결정 및 바람직한 의

사결정을 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며, 재무관리 행동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며, 금융소비자가 재무건전성 유지 및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다수의 연구(권세훈·반주일, 2021; 김민정 외 2인, 2021; 김범석·이성림, 2022; 김아름·양혜경, 2016; 김정현·최현자, 2011)에서 공통적으로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보였다.

재무관리역량과 책임 인식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재무관리역량의 하위 영역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책임인식을 살펴본 연구는 존재한다. 권세훈·반주일(2021)의 연구에서는 금융지식이 자기주도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결과를 미치며, 금융지식수준이 높을수록 판매자와 투자자의 책임 배분을 투자자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지영·최현자(2021)의 연구에서는 펀드 이해력이 높을수록 자기책임 인식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내용을 볼 때, 재무지식, 태도, 기능 등의 재무관리역량이 높은 금융소비자는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기술이나 능력을 발휘하여 금융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금융투자 상황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린 금융소비자는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의식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무관리역량은 자기책임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 3)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자기책임의 중요한 전제로 ‘자기 스스로의 결정’이라는 개념을 설명하였다. 윤리 영역에서는 ‘자유의지’, ‘자기 결정성’,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이 선행되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였

다. 법의 영역에서도, 헌법에서는 ‘자기결정권’, 민법에서는 ‘사적자치의 원리’ 등과 같이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이 전제가 되어야 자기책임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소비자책임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도 ‘스스로’, ‘주권자’ 등의 개념을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은 개인이 수행해야 하는 행동의 가치와 조절이 내재화를 통해 자율적 혹은 자기결정적이 되는 과정을 다루며, ‘자율성’을 핵심으로 놓고 있다. 자기결정성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조절은 자율성 혹은 자기결정적 기능 수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행동의 원인이 자기결정적일수록 내재적 동기가 유발된다고 하였다(김아영, 2002; 이명희·김아영, 2008; 이병기, 2015; 심현정 외 2인, 2018; Deci & Ryan, 2000; Gagné & Deci, 2005). 여기서, 내적 동기는 자율적 동기부여를 의미하고, 자율성은 자발성과 선택의 경험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며, 자기 행동에 대한 자기 지지를 경험하게 되는 동기이다(김아영, 2002; 이명희, 2008; 심현정 외 2인, 2018; Deci & Ryan, 2000, 2008).

자율성(autonomy)이란 자기 행동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자신이 스스로 행동 주체이고 조절자라는 신념으로 자신의 흥미와 통합된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성은 독립성과 정반대 개념은 아니며, 다른 사람의 요구나 강요된 행동과 가치도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자율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요구받거나 강요된 행동과 가치도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다고 보았고, 외재동기도 개인이 지각하는 상대적인 자율성 정도에 따라 동기유형이 다양할 수 있다(김기욱, 2007; 이명희, 2008; Deci & Ryan, 2000, 2008).

한편, 소비행위연구에서 이론탐색을 통해 자율성의 개념을 연구한 권혜진·

이기춘(2006)은 소비자의 자율성이란 소비합리성 실현의 필요조건이자 자기통치 개념의 핵심이라고 보고, 자율성 개념을 크게 3가지로 설명하였다. 먼저, 자율성은 성숙한 시민의 이상적인 상태(ideal condition)로 자기주권을 갖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둘째, 이상적 상태를 실현하는데 요구되는 개인의 능력(competence)으로 자기통제와 같은 성질이 포함된 자기성찰적인 인간의 자질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자율성은 개인이나 집단이 타자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권리(right)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기옥(2007)은 소비자의 자기결정적 성향과 동기가 소비자의 소비생활복지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기결정성 이론을 소비자에게 적용하여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자기결정적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Deci & Ryan(2000)이 개발한 기본적 심리욕구 척도를 소비생활에 적용하였고, 연구에서 자율성은 내적동기를 유발하는 소비자우선성과 자율적으로 구매를 조절하고 결정하는 자율성 수준동기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자율성 또는 자기결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심리학, 교육, 진로, 신체적 운동 등의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금융 의사결정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최근 들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먼저, 금융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성 수준의 개념을 적용한 연구는 강지영·최현자(2021)가 있다. 자기결정성의 자율성 개념을 적용하여 연구한 결과, 자율성은 자기책임 인식과 유의한 정(+)의 관계이고, 투자의 자발성 과도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연령, 학력, 금융자산 자기결정성이 자발성 투자의 동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보험영역에서 자율성 수준 개념을 적용한 연구도 다소 있었다. 심현정 외 2인(2018)은 소비자의 자발적 구매동기가 보험소비자의 자기결정성과 보험소비 만족 사이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보험소비의 자율성은 소비자가 스스로 인지하는 소비의 자율성이라 재정의하고, 보험에 대한

권리와 책임 문항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자발적 구매동기는 보험 소비 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보험소비자율성과 보험소비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는 자발적 구매동기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진 외 2인(2014)의 연구에서는 보험에 대한 태도가 자율성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보험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높은 소비자는 보험소비 시 자신의 의지대로 자율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자율성이 높게 나타났고, 보험소비의 자율성이 높을수록 후회감은 낮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조혜진·한지형(2020)은 자율적 보험구매를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이, 미혼자보다는 기혼자가, 고등학교 졸업일 경우, 월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율적으로 보험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구매 전에 보험의 필요성을 얼마나 인식하였는지, 스스로 보험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할수록, 보험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자율적 보험구매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보험영역 연구의 경우, 금융투자에서의 자기책임을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만족감과 후회감 역시 자기책임 인식과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인지 내지는 감정이라는 측면에서 참고가 될만 하다. 또한, 자율성 수준은 내적 동기에 영향을 받으며, 자신이 스스로 행동 주체이고 조절자라는 신념이 포함된 의미이다. 이에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 수준 수준은 자기책임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투자 과정에서 인식하는 자기책임의 차원과 척도를 구성한 후, 금융소비자의 특성(인구사회학적 특성, 재무특성과 재무관리역량, 심리적 성향)에 따라 각 차원별 자기책임 인식수준을 비교하고, 각 차원별 자기책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을 보다 넓은 의미로 확장하여 측정하고, 그 하위차원을 구분함으로써, 자기책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또한 금융투자 전 과정에서 각 차원별 자기책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자기책임 인식을 제고하고, 자기 판단 하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금융투자에서 금융소비자가 인식하는 자기책임의 차원과 척도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 <연구문제 2>

금융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각 차원별 자기책임 인식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2. 재무특성과 재무관리역량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3. 심리적 성향(통제위치, 조절초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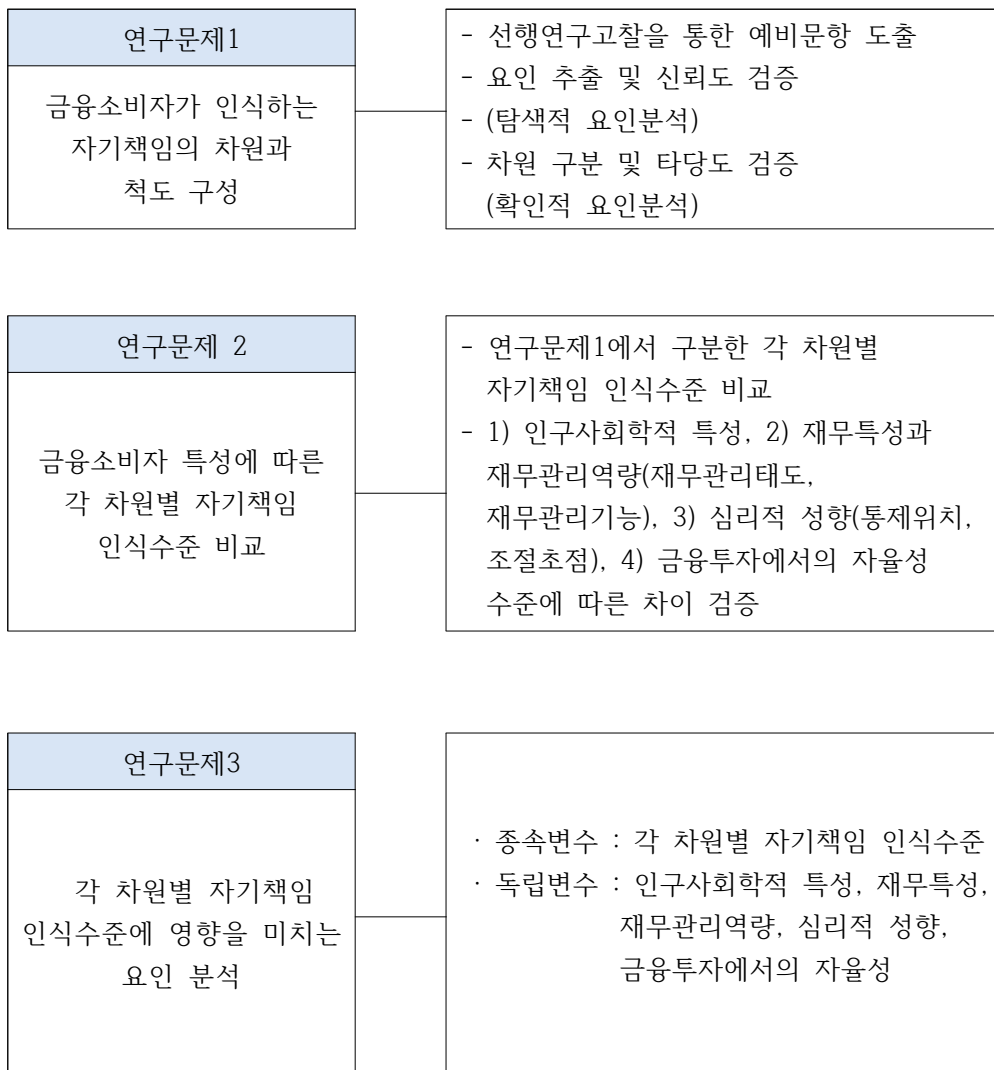
2-4.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금융소비자의 각 차원별 자기책임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2. 연구분석절차

본 연구의 세 가지 연구문제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차적인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 그림 1 ] 연구분석 절차

###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금융투자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인식하는 자기책임과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만 69세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자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금융투자에서의 자기책임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 구매경험이 있는 성인으로 조사대상을 제한하였다. 이를 위해 스크린 문항 ‘귀하께서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에 ‘그렇다’고 응답한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리서치 전문기관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주)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성별과 연령에 따라 할당표집을 하였다. 응답 자료의 검토를 통해 불성실 응답, 정보 불일치 등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42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4.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금융소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재무특성 및 재무관리역량, 심리적 성향,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 및 자기책임 인식수준이다 (<표 5>, <표 10>).

<표 5> 측정도구의 구성

구분	변수	측정항목/ 설명	관련문헌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성별	남성, 여성	
	연령	만 20세 ~ 만 69세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이상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시 단위 중소도시, 읍·면·부(농·어·촌)	
	직업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 및 기술·기능직, 주부, 자영업, 농축어업·단순노무·기타(학생, 무직)	한국표준 직업분류
재무 특성	월평균 소득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 상여금,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총 연간소득을 12로 나눈 값	
	금융자산	예·적금, 연금, 펀드, 주식·채권상품, 고위험 상품들의 총 보유액	
	투자성향	- 위험손실 위험 수준에 따라 7개로 유형 구분 공격투자형, 주식선호형, 주식형펀드선호형, 고수익채권선호형, 혼합투자형, 안전투자선호형, 이자소득형	표준투자 권유준칙 (2021)
	투자기간	최초로 금융상품에 투자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기대이익 수준	금융상품 투자를 통해 평균적으로 기대하는 수익 수준	
	손실감내 수준	금융상품 투자를 통해 평균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손실 수준	
재무 관리 역량	재무 관리 태도	금융환경과 재무관리 의사결정, 투자에 대한 태도 - 투자에 대한 태도 - 재무설계의 중요성 인식 - 재무상태파악의 중요성 인식 - 재무설계에 있어서의 미래 지향적 태도	김정현·최현자 (2012)
	재무 관리 기능	금융환경과 재무관리 의사결정, 투자에 대한 능력 - 적절하게 배분된 포트폴리오 구성 능력 - 금융상품 정보수집 능력 - 인플레이션, 금리, 환율 변동에 따른 행동 방향 수집 능력 - 투자 전문가 활용 능력	
통제 위치	내적통제	- 강화나 보상은 자신의 행위이거나 노력의 결과로 인한 것 - 개인의 삶은 개인의 결정과 행동의 결과라고 믿는 것	Socio-Economic Panel (SOEP) 문항 사용
	외적통제	- 발생한 결과는 자신의 행위나 노력과는 무관 -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운, 기회 등과 같은 개인의 통제 밖에 있다고 믿는 것	
조절	향상초점	- 목표달성을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규제하는	Higgins

초점		방식으로 성장과 나아감(발전), 긍정적인 결과를 추구하는 성향	et al, (2001)
	예방초점	- 회피 측면을 강조하고, 실패를 회피하며 안전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성향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		-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적, 자발적 구매 의사결정	Decy& Ryan(2000) ,Gagné (2003)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배우자 유무, 거주지역을 조사하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이상의 네 집단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고하여,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영업직, 기술·기능직, 농림·어업·축산 관련 종사자, 단순 노무직, 주부, 자영업, 학생, 무직, 기타의 11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거주지역은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시 단위 중소도시, 읍·면·부(농·어촌)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 2) 재무특성 및 재무관리역량

### ① 재무특성

재무특성은 월평균소득 및 보유자산을 조사하였고, 투자 관련 특성으로 이용 경험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평균 개수,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평균 개수, 투자성향, 평균 투자기간, 평균 기대이익 수준, 평균 손실감

내 수준을 조사하였다.

월평균소득은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 상여금,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 전소득 등 총 연간소득을 12로 나눈 값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보유자산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금융자산은 예·적금, 연 금, 펀드, 주식·채권상품, 고위험상품으로 구분하여 총 보유액을 기입하도록 하였고, 부동산은 주택, 주택 외의 부동산을 합하여 총 보유액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 은 채권,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국내 외 주식형 펀드, 고난도 펀드, 국 내/해외주식,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암호화폐, NFT까지 위험도가 낮은 상 품부터 초고위험 상품까지를 제시한 후 표시하도록 하였다.

투자성향은 표준투자권유준칙(2021)을 참고하여, 원금손실 위험 수준에 따 라 공격투자형, 주식선호형, 주식형펀드선호형, 고수익채권선호형, 혼합투자 형, 안전투자선호형, 이자소득형의 7개 유형을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하였다.

투자기간은 최초로 금융상품에 투자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대이익 수준은 조사자가 금융상품투자를 통해 평균적으로 기대하는 수익 수준을 직접 기입하게 하였고, 손실 감내 수준도 금융상품 투자를 통해 평균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을 직접 쓰도록 하였다.

## ② 재무관리역량

재무관리역량은 금융소비자로서 적절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적응하며, 자 신의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재무관리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김정현·최현자(2012)의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태도, 기능의 두

가지 항목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김정현·최현자(2012)가 제시한 금융환경과 재무관리의사결정, 투자에 대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10개의 문항으로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가 평소 자신에게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5점 척도(1 = 매우 아니다, 5 =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기능 점수가 높을수록 역량이 높은 것이다.

재무관리역량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을 묶기 위해 주성분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직각회전 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재무관리태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총 5개의 문항 중 ‘나는 장·단기 재무목표를 가지고 있다’ 문항은 교차적재되어 제거하였다. 총 4개의 문항은 요인적재량이 .60 이상으로 기준치(.40~.50)보다 높게 나타났고, 문항 간 내적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alpha = .75$ 로 조사되었다.

재무관리기능 문항의 경우, 공통성이 .40 이하인 문항은 삭제하였고, 4개 문항의 요인적재량은 .60 이상으로 기준치를 충족하였으며, Cronbach's  $\alpha = .69$ 로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표 6> 재무역량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명	측정문항	공통성	요인적재량		Cronbach's $\alpha$	Eigen-Value	누적비율
			1	2			
재무관리태도	나는 정기적으로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4	.71	.18	.75	3.29	41.14
	5년 후 혹은 10년 후 내 재정상태가 어떨지 생각해 보는 것은 성공적인 재무관리에 도움이 된다.	.53	.69	.24			
	나의 자산과 부채가 얼마인지 알고 있다.	.66	.81	.00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재무상황을 점검한다.	.56	.72	.21			
	나는 장·단기 재무목표를 가지고 있다.	.56	.55	.50	삭제		
재무관리기능	나는 여러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분산투자함으로써 투자 위험을 감소시킨다.	.43	.37	.60	.69	1.25	56.74
	금융상품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한다.	.54	.37	.68			
	금리나 환율변동 등 금융환경 변화에 관심을 갖고, 나의 자산 관리에 적용할 수 있다.	.54	.24	.72			
	나는 투자에 대해 조언을 구할 전문가(공인중개사, 은행이나 증권회사 직원, 재무설계사 등)를 찾아갈 수 있다.	.64	-.13	.75			
	나의 위험감수성향(예 : 위험회피 - 위험선호)에 알맞은 상품(예 : 정기예금 - 파생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38	.28	.55	삭제		
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					.82		
Bartlett 구형성 검증		Chi-sq			854.79		
		df(p)			28 (.00)		

### 3) 심리적 성향

#### ① 통제위치(Locus of Control)

통제위치(Locus of Control)는 개인의 행동이나 사건이 자기 내부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통제할 수 없는 바깥 영역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Rotter, 1966). 본 연구에서는 DIW Berlin(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이 시행하는 Socio-Economic Panel(SOEP)의 문항을 사용하였고, SOEP의 문항은 내적 통제 2문항, 외적통제 5문항으로 총 7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도 내적 통제위치 2문항, 외적 통제위치 5문항을 사용하였고, 5점 리커트 척도(5 = 매우 그렇다, 1 = 매우 아니다)로 통제위치 문항을 측정하였다.

통제위치 측정 문항의 구성개념을 확인하고자 주성분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직각 회전(varimax rotation)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표 7>).

통제위치는 총 7개의 문항이 2개의 하위요인(내적통제, 외적통제)으로 분류되었다. 내적통제는 요인적재량이 .80 이상이었고, 요인의 Cronbach's  $\alpha$  값은 .62로 문항 간의 내적일치도를 확보하였다. 외적통제는 문항의 공통성이 .40 이하인 문항(인생의 성공은 운명이나 행운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을 제외하고, 총 4개 문항의 요인적재량은 .60 이상으로 나타나 기준을 만족하였으며, 요인의 Cronbach's  $\alpha$  값은 .65로 나타났다. 각 요인으로 설명된 총분산의 누적설명력은 52.71%이고, Bartlett 구형성 검증결과  $p < .001$ 로 나타나 구성하는 문항들이 척도로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통제위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명	측정문항	공통성	요인적재량		Cronbach's alpha	Eigen-Value	누적비율
			1	2			
내적 통제	나의 삶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71	-.01	.84	.62	1.93	32.20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67	.04	.82			
외적 통제	나는 종종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43	.63	.17	.65	1.63	57.71
	인생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47	.68	-.10			
	인생의 기회는 사회적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53	.72	.11			
	나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66	.70	-.40			
	인생의 성공은 운명이나 행운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36	-.05	.60	삭제		
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						.63	
Bartlett 구형성 검증			Chi-sq		335.07		
			df (p)		15 (.00)		

## ②조절초점(Regulatory Focus)

조절초점은 Higgins et al.(2001)의 조절초점 척도(Regulation Focus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조절초점 척도는 총 11개의 문항으로 향상초점은 6개 문항, 예방초점은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각각의 문항마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제시하였다.

조절초점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을 묶기 위해 주성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고 직각회전

Varimax방법을 사용하였다.

향상초점은 6개의 문항 중 ‘성공적으로 일을 마친 후에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자주한다.’는 요인적재량이 기준값 .40 보다 낮아 삭제하였고, ‘중요한 일을 할 때, 내가 하려고 하는 만큼 잘 해내지는 못하는 것 같다’는 교차적재 되어 제외하였다. 향상초점 문항은 총 4개이고, 요인의 Cronbach's  $\alpha = .61$ 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예방초점은 요인적재량의 기준 .40을 충족하지 못한 ‘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만든 규칙과 규제를 가능한 한 지키려고 노력했다.’은 삭제하였다. 전체 4개 문항을 도출하였고, 예방초점 문항의 Cronbach's  $\alpha = .70$ 으로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조절초점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명	측정문항	공통성	요인적재량		Cronbach's $\alpha$	Eigen-Value	누적비율
			1	2			
향상초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얻지 못하는 것 같다.*	.58	.04	.63	.61	1.53	51.45
	나는 새롭게 시도한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편이다.	.46	-.02	.67			
	나는 내 삶이 성공을 향해 가고 있다고 느낀다.	.51	-.06	.74			
	나는 흥미가 생기거나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든 취미 활동이 거의 없다.*	.46	.25	.61			
	성공적으로 일을 마친 후에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60	-.14	.11	삭제		
	중요한 일을 할 때, 내가 하려고 하는 만큼 잘 해내지는 못하는 것 같다.*	.53	.53	.49	삭제		

예 방 초 점	나는 자라면서 부모님이 참기 어려운 일을 저지른 적이 있다.*	.54	.72	.09	.70	2.58	32. 28
	나는 자라면서 부모님을 자주 불안하게 만들었다.*	.70	.83	.16			
	나는 자라면서 부모님이 반대하시거나 싫어하시는 일을 한 적이 있다.*	.46	.67	-.14			
	나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수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42	.61	.11			
	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만든 규칙과 규제를 가능한 한 지키려고 노력했다.	.66	.23	.01	삭제		
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						.71	
Bartlett 구형성 검증						Chi-sq	621.5
						df (p)	28 (.00)

주1) \* : 역코딩 문항

#### 4)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

금융투자에서 자율성은 Deci & Ryan(2000)이 기본심리욕구 척도로 개발한 자율성 문항 중 일부를 활용하였다. Deci & Ryan(2000), Gagné(2003) 등이 사용한 문항으로 구성된 자율성 척도는 행동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그러므로 ‘~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를 느낀다’, ‘~에서 강요당하는 느낌이 든다’와 같은 문항을 사용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김기옥(2007), 심현정 외(2018) 등을 참고하여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적, 자발적 구매의사결정에 초점을 두고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자율성은 총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금융투자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성 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9>, ‘나는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할 때, 종종 부담감을 느낀다.’문항은 공통성 최소 기준인 .40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삭제하였다.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은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Cronbach's  $\alpha = .63$ 으로 확인되어,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이 척도로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표 9>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명	측정문항	공통성	요인적재량	Cronbach's $\alpha$	Eigen-Value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	나는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하는 전 과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73	.72	.63	1.91
	나는 금융투자상품을 결정할 때, 주로 금융회사나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의견을 따른다. *	.63	.69		
	나는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할 때, 내 생각과 판단에 의해 결정한다.	.75	.69		
	나는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하고 구매하는 과정에서 지인에게 자주 도움을 요청한다. *	.62	.66		
	나는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할 때, 종종 부담감을 느낀다.*	.34	.37	삭제	
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	.61	
Bartlett 구형성 검증			Chi-sq	252.97	
			df (p)	6(.00)	

주1) \* : 역코딩 문항

### 5) 금융투자에서의 자기책임 인식

금융투자에서 금융소비자가 인식하는 자기책임을 측정하고, 그 차원을 구분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예비문항 pool을 구성하였다. 예비문항은 윤리, 법 영역에서의 책임의 개념, 금융소비자보호법, 소비자기본법, 그리고 소비자책임과 관련된 선행연구(강지영 외 2인, 2021; 권지연, 2007; 김민정, 2017; 김성천·정대표, 2012; 김연숙, 2008; 김혜연·김시월, 2014; 모운중

외 3인, 2014; 심영, 2021; 육성욱·김삼원, 2020; 장연주 외 2인, 2018; 허경욱, 1998; Carroll, 1991; Davis, 1979; Kashyap, R. & Iyer. E. S., 2009)에서 제시한 척도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금융투자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초기 단계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한 문항은 총 39개였다. 이들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에 부합하는 적절한 문항인지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학 박사 및 박사과정 3인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중복되거나 금융투자 상황에 적용되기 어려운 부적합한 문항을 제거하는 작업을 거쳐 총 25개의 예비문항을 도출하였다<표 10>. 모든 문항은 금융투자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척도(5점)을 이용하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제시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책임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10>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수준 척도 예비문항 구성

문항 내용	참고문헌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 시 법적 구속력이 없어도 타인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고 행동할 책임이 있다.	Carroll(1991), 김성천·정대표(2012)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계약 및 해지 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를 책임이 있다.	김연숙(2008)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육성욱·김삼원(2020)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에서 도덕적 원칙을 지킬 책임이 있다.	육성욱·김삼원(2020)
금융소비자는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양심있게 작성할 책임이 있다.	선행연구 참고 제작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 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책임이 있다.	강지영 외 2인(2021)
금융회사의 부당한 거래를 알게 되면, 이를 시정, 고발할 책임이	허경욱(1998),

있다.	장연주 외 2인 (2018)
금융소비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읽고 이해 할 책임이 있다.	Davis(1979), 권지연(2007),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구매 전 다양한 정보를 찾을 책임이 있다.	허경옥(1998)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다른 상품과 충분히 비교해 볼 책임이 있다.	심영(2021)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구매 후 운용보고서 등을 읽고 확인할 책임이 있다.	김민정(2017)
금융소비자는 금융피해 발생 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으려고 노력할 책임이 있다.	금소법 7조 4 항, 김혜연·김 시월(2014)
금융소비자는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강지영 외 2인 (2021)
금융소비자는 정보 획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김혜연·김시월 (2014), 금소법 8조 2 항
금융소비자는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형성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Carroll(1991), 김성천·정대표 (2012), Kashyap, R. & Iyer, E. S.(2009), 김연숙(2008), 강지영 외 2인 (2021)
금융소비자는 금융서비스와 거래시스템을 적절하고 건전하게 이용할 책임이 있다.	강지영 외 2인 (2021)
금융소비자는 필요시에 금융회사, 정부에 현명하고 가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Davis(1979), 권지연(2007), 모운중 외 3인 (2014), 소비자기본법, 금융소비자보 호법 7조 3항
금융소비자는 단체 조직 또는 참여를 통해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금소법 7조 6 항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환경, 인권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책임이 있다.	강지영 외 2인 (2021)
금융소비자는 불법 및 불공정한 방식을 통해 거래되는 금융상품을 선택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김혜연·김시월 (2014)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설명서나 약관 등에 고지된 상품 및 계약 정보를 주의 깊게 읽을 책임이 있다.	장연주 외 2인 (2018)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게 자신의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선행연구 참고 제작, 금소법 제14조
금융소비자는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강지영 외 2인 (2021)
계약 체결 시에 하는 서명, 기명날인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의사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이다.	선행연구 참고 제작
금융소비자는 권리를 남용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강지영 외 2인 (2021)

## 5.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5.0과 AMOS 26.0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재무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 평균 등의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자기책임 인식의 차원과 척도를 구성하고, 신뢰도 검증을 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측정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연구문제1).

셋째, 금융소비자의 특성(인구사회학적 특성, 재무특성과 재무관리역량, 심리적 성향,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에 따라 각 차원별 자기책임 인식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다(연구문제 2).

넷째, 금융투자에서 각 차원별 자기책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연구문제 3).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210명(50%) 여성이 210명(50%)으로 동일하고, 연령대는 20~29세 82명(19.8%), 30~39세 86명(20.5%), 40~49세 86명(20.5%), 50~59세 83명(19.8%), 60~69세 83세(19.8%)이고, 연령 평균은 44.41세로 조사되었다. 거주지역은 서울 124명(29.5%), 6대 광역시 112명(26.7%), 시 단위 이하 지역 184명(43.8%)이고,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 64명 (15.2%), 대학 졸업 307(73.1%), 대학원 이상 졸업 49명(11.7%)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는 249명(59.3%)이고,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는 171명(40.7%)으로 조사되었고, 직업은 전문·관리직 41명(9.8%), 사무직 165명(39.3%), 서비스 판매 및 기술 기능직 53명(12.6%), 주부 49명(11.7%), 자영업 40(9.5%), 농·축·어업 및 단순노무, 학생, 무직 72명(17.1%)으로 나타났다.

<표 1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420)

변수	구분	빈도(%) /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성	210	(50)
	여성	210	(50)
연령	20대	82	(19.8)
	30대	86	(20.5)
	40대	86	(20.5)
	50대	83	(19.8)
	60대	83	(19.8)
	평균 (세)	44.41	(13.47)

거주지역	서울	124	(29.5)
	6대 광역시	112	(26.7)
	시 단위 이하	184	(43.8)
교육수준	고졸 이하	64	(15.2)
	대졸	307	(73.1)
	대학원 이상	49	(11.7)
배우자 유무	있음	249	(59.3)
	없음	171	(40.7)
직업	전문·관리직	41	(9.8)
	사무직	165	(39.3)
	서비스 판매 및	53	(12.6)
	기술 기능직	49	(11.7)
	주부	40	(9.5)
	자영업	72	(17.1)
	농축어업/단순노무/기타 (학생, 무직)		

## 2) 재무특성

### ① 재무상태

재무상태는 월평균소득, 금융자산, 부동산자산을 조사했고, 그 결과는 <표 12>과 같다.

월평균소득은 약 418.71만원으로 나타났고, 총자산 평균은 42,923.42만원이었다. 자산 상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자산 중 예·적금 보유액 평균은 3,354.20만원, 연금 보유액 평균은 1,250.25만원, 펀드 보유액 평균은 362.34만원, 주식·채권상품 보유액 평균은 1,946.54만원, 고위험 상품(선물, 옵션, 파생결합증권, 암호화폐, NFT) 보유액 평균은 174.21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자산 중에서 거주 주택 보유액 평균은 29,755.18만원, 거주 주택 외 부동산 보유액 평균은 6,080.71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12> 조사대상자의 재무상태 (n=420, 단위 : 만원)

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월평균 소득 (만원)		평균	418.71	(516.26)
		중앙값	300.00	
총자산 (만원)		평균	42,923.42	(63,301.46)
		중앙값	23,152.50	
금융자산	예·적금 (수시 입출금식 예금, 정기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등)	평균	3,354.20	(5,595.02)
		중앙값	1,000.00	
	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평균	1,250.25	(2,664.28)
		중앙값	100.00	
	펀드 (적립식·예치식 펀드 등)	평균	362.34	(1,415.79)
		중앙값	0	
	주식·채권상품 (주식, 채권 등)	평균	1,946.54	(4,510.19)
		중앙값	500.0	
	고위험 상품 (선물, 옵션, 파생결합증권, 암호화폐, NFT)	평균	174.21	(569.864)
		중앙값	0	
부동산자산	거주 주택	평균	29,755.18	(51,583.53)
		중앙값	14,400.0	
	주택 외 부동산	평균	6,080.71	(20,757.88)
		중앙값	0	

## ② 투자 특성

조사대상자의 투자 관련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13>와 같다.

투자 경험이 있는 금융상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은행적금(15.5%), 은행예금(14.9%), 국내주식(14.6%), 보장성 보험(12%), 저축성보험(8.6%), 해외주식(7.3%), 국내주식형펀드(5.8%), 암호화폐(5.2%), 혼합형펀드(3.7%), 해외주식형펀드(2.8%), 채권(2.3%), 채권형펀드(2.0%), NFT(1.6%), 고난도펀드(1.5%), 파생결합증권(1.5%), 파생상품(0.7%), 기타 순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경우, 은행예금(18.5%), 은행적금(15.7%),

보장성보험(14.3%), 저축성 보험(8%)의 보유 비중이 높았고, 다음으로 국내 주식(16.6%), 해외주식(7.9%), 암호화폐(5.2%), 국내주식형펀드(3.5%), 혼합형펀드(2.3%), 해외주식형펀드(2.0%)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가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용 또는 경험 해본 금융상품의 평균 개수는 5.9개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평균 개수는 약 4.3개였다.

투자성향을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32.6%(137명)가 안전투자형, 20%(84명)가 혼합투자형, 16.9%(71명)는 주식선호형, 11%(46명)는 이자소득형이며, 공격투자형·주식형펀드선호형·고수익채권선호형은 각각 8.6%(36명), 6.9%(29명), 4.0%(17명)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투자기간은 11.41년이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평균적으로 기대하는 이익 수준은 약 35%(중위값 20%), 평균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은 약 18%(중위값 10%)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11%가 이자소득형, 32.6%가 안전투자형으로 응답한 것을 고려하면, 기대하는 이익 수준, 감수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조사대상자의 투자 관련 특성 (n=420)

변수	구분	빈도(%)		보유율(%)
이용 경험 있는 금융상품 (복수응답, n=2,480)	은행예금	370	(14.9)	88.1
	은행적금	384	(15.5)	91.4
	보장성보험	298	(12.0)	71.0
	저축성보험	213	(8.6)	50.7
	채권	57	(2.3)	13.6
	채권형펀드	50	(2.0)	11.9
	혼합형펀드	91	(3.7)	21.7
	국내주식형펀드	143	(5.8)	34.0
	해외주식형펀드	70	(2.8)	16.7
	고난도펀드	37	(1.5)	8.8
	국내주식	362	(14.6)	86.2
해외주식	181	(7.3)	43.1	

	파생결합증권	38	(1.5)	9.0
	파생상품	18	(0.7)	4.3
	암호화폐	128	(5.2)	30.5
	NFT	39	(1.6)	9.3
	기타	1	(0)	0.2
	개수평균 (표준편차)	5.90 (2.47)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 (복수응답, n=1,797)	은행예금	332	(18.5)	79.0
	은행적금	283	(15.7)	67.4
	보장성보험	257	(14.3)	61.2
	저축성보험	143	(8.0)	34.0
	채권	26	(1.4)	(6.2)
	채권형펀드	14	(0.8)	(3.3)
	혼합형펀드	41	(2.3)	(9.8)
	국내주식형펀드	63	(3.5)	(15.0)
	해외주식형펀드	36	(2.0)	(8.6)
	고난도펀드	22	(1.2)	(5.2)
	국내주식	299	(16.6)	(71.2)
	해외주식	142	(7.9)	(33.8)
	파생결합증권	17	(0.9)	(4.0)
	파생상품	4	(0.2)	(1.0)
	암호화폐	93	(5.2)	(22.1)
	NFT	24	(1.3)	(5.7)
기타	1	(0.1)	(0.2)	
	개수평균 (표준편차)	4.27 (2.11)		

<표 13> 조사대상자의 투자관련 특성(계속) (n=420)

변수	구분	빈도(%) / 평균(표준편차)	
투자 성향	공격투자형	36	(8.6)
	주식선호형	71	(16.9)
	주식형펀드선호형	29	(6.9)
	고수익채권선호형	17	(4.0)
	혼합투자형	84	(20.0)
	안전투자선호형	137	(32.6)
	이자소득형	46	(11.0)
평균 투자기간(년)		11.41	(8.91)
평균 기대이익 수준(%)		34.94	(46.05)
평균 손실감내 수준(%)		17.81	(17.30)

## 2. 연구문제1 : 금융소비자가 인식하는 자기책임의 차원과 척도 구성

금융소비자가 인식하는 자기책임의 차원과 척도를 구성하기 위해(연구문제1) 다음과 같은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고찰과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도출한 예비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자기책임 인식의 차원을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문항의 요인구조를 검증하고,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항을 정제한 후 금융소비자가 인식하는 자기책임의 차원과 척도를 최종적으로 구성하였다.

### 1) 탐색적 요인분석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이 어떠한 차원으로 분류되는지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각 문항이 정확하게 측정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윤리, 법 영역에서의 책임의 개념, 금융소비자보호법, 소비자기본법, 그리고 소비자책임과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과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도출한 총 25개의 예비문항(<표 10>)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성분 요인분석을 사용하였고, 요인회전은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전하는 방법인 직각 회전(varimax rotation)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요인적재량이 0.4이상이면 유의미한 변수로 판단한다(성태제, 2016), 본 연구에서는 문항 간 응집성을 떨어뜨리거나 공통성(Communality) 값이 .40 이하인 문항, 교차요인적재량(cross factor loading)이 높은 문항의 경우에는 요인분석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삭제하였다.

요인추출에 의해 형성된 문항에 대해서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검증을 위한 KMO(Kaiser-Meyer-Olkin) 검증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고, 문항의 내적신뢰도(reliability) 분석을 위해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검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표14>), 문항은 21개 문항이 4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자기책임 인식 문항의 KMO 표준적합도는 .94으로 일반적 기준인 .80 보다 높게 나타나 관련 변수들 간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이 유의하여( $\chi^2(p) < .001$ )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요인1은 불법 및 불공정한 방식 거래를 하지 않고, 금융상품 설명서나 약관 등 계약 정보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하며, 자신의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고, 서명, 기명날인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하고,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구속력 및 강제성이 발생할 수 있는 문항이 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법적 책임'이라고 명명하였다. 법적 책임과 관련된 요인1의 고유값(eigen value)은 9.23이었고, 전체 분산의 18.62%를 설명하였다. 법적책임 요인은 6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내적일치도를 검증하는 Cronbach's  $\alpha$  는 .87로 확인되었다.

요인2에 포함된 문항들을 살펴보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를 책임, 도덕적 원칙을 지킬 책임, 타인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고 행동할 책임,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책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서 도덕 및 양심과 관련된 책임 인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서 도덕, 윤리, 양심과 관련하여 인식하는 책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요인2는 '도덕 책임'이라고 명명하였다. 도덕 책임 요인의 고유값(eigen value)은 1.72였고, 전체

분산의 16.04%를 설명하였다. 도덕 책임 요인은 6문항으로 구성되었고, Cronbach's  $\alpha$  는 .85로 나타났다.

요인3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주로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약내용을 이해할 책임, 구매 전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고 비교할 책임,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으려고 노력할 책임 등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의 당사자로서 개인의 영역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요인3은 개인의 의무와 권리의 개념을 포괄하는 차원에서 '주권자 역할책임'이라고 명명하였다. 주권자 역할책임은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고유값 1.33이었으며, 전체 분산의 15.29%를 설명하였다. Cronbach's  $\alpha$  는 .87로 나타났다.

요인4는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형성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할 책임, 금융서비스와 거래시스템을 적절하고 건전하게 이용할 책임, 가치 있는 의견 제시할 책임, 단체 조직 및 참여, 사회적 가치 고려 등에 대한 책임 인식에 대한 문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즉, 금융시장의 질서, 건전성, 사회적 가치 등 개인보다는 시장거래 주체로서의 가치를 고려하며 수행하는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요인4는 '사회적 역할책임'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4의 고유값은 1.06이고, 전체분산의 13.59%를 설명하였다. 사회적 역할책임 요인은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Cronbach's  $\alpha$  는 .83이었다.

이처럼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을 설명하는 4개의 요인이 전체 분산의 63.54%를 설명하였고, 각 요인의 내적일치도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각 요인의 구분과 이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적도로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표 14>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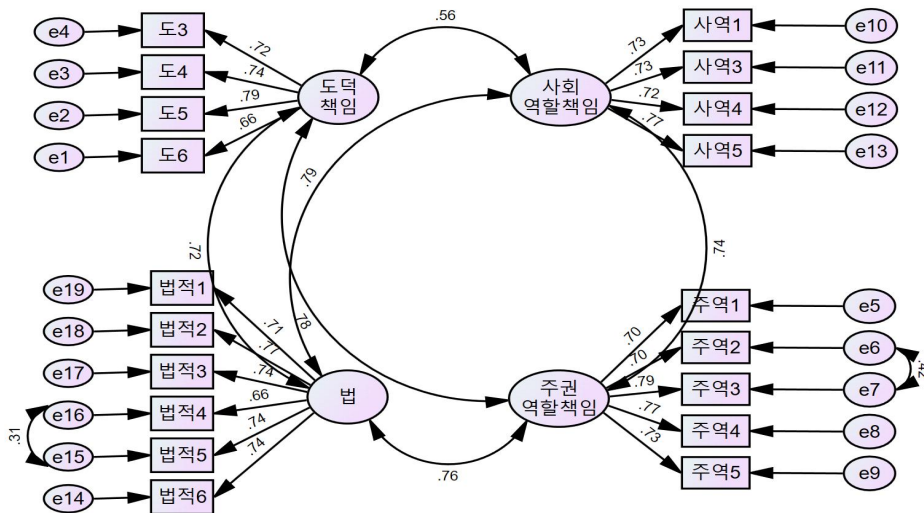
요인명	측정문항	공통성	요인적재량				Cronbach's $\alpha$	Eigen-Value	누적비율
			1	2	3	4			
법적책임	금융소비자는 불법 및 불공정한 방식을 통해 거래되는 금융상품을 선택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54	.62	.19	.27	.25	.87	9.23	18.62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설명서나 약관 등에 고지된 상품 및 계약 정보를 주의 깊게 읽을 책임이 있다.	.64	.69	.18	.26	.27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게 자신의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60	.62	.23	.09	.41			
	금융소비자는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61	.73	.22	.09	.15			
	계약 체결 시에 하는 서명, 기명날인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의사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이다.	.71	.78	.14	.26	.14			
	금융소비자는 권리를 남용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60	.65	.20	.17	.35			
도덕책임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 시 법적 구속력이 없어도 타인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고 행동할 책임이 있다.	.70	.00	.78	.06	.29	.85	1.72	34.66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계약 및 해지 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책임이 있다.	.66	.13	.77	.12	.18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58	.40	.58	.28	-.07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에서 도덕적 원칙을 지킬 책임이 있다.	.58	.30	.67	.21	.09			
	금융소비자는 투자정보 확인서를 양심있게 작성할 책임이 있다.	.62	.31	.61	.39	.10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 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책임이 있다.	.51	.29	.59	.30	.04			
주권자역	금융소비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읽고 이해할 책임이 있다.	.62	.41	.35	.56	.04	.87	1.33	49.95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구매 전 다	.73	.16	.12	.81	.24			

할 책 임	양한 정보를 찾을 책임이 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다른 상품과 충분히 비교해볼 책임이 있다.	.78	.20	.22	.79	.27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구매 후 운용보고서 등을 읽고 확인할 책임이 있다.	.64	.18	.25	.68	.33				
사 회 적 역 할 책 임	금융소비자는 금융피해 발생 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으려고 노력할 책임이 있다.	.55	.26	.33	.57	.24	.83	1.06	63. 54	
	금융소비자는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형성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61	.39	.25	.27	.77				
	금융소비자는 필요시에 금융회사, 정부에 현명하고 가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62	.20	.12	.24	.74				
	금융소비자는 단체 조직 또는 참여를 통해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62	.20	.08	.21	.77				
삭 제 된 문 항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환경, 인권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책임이 있다.	.62	.30	.13	.20	.73				
	금융회사의 부당한 거래를 알면, 이를 시정, 고발할 책임이 있다.	.52	.31	.39	.47	.23				
	금융소비자는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51	.25	.21	.24	.58				
	금융소비자는 정보 획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53	.23	.08	.31	.61				
	금융소비자는 금융서비스와 거래 시스템을 적절하고 건전하게 이용할 책임이 있다.	.54	.47	.17	.15	.51				
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							.94			
Bartlett 구형성 검증							Chi-sq		4705.05	
							df (p)		210 (.000)	

## 2)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4개 요인, 21개의 문항에 대해 단일차원성을 저해하는 항목을 정제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적합도(model fit)를 판정하고, 측정변수들이 잠재요인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집중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잠재요인들 간의 차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판별타당도 검증을 시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여 관계를 측정하였다. 적합한 모형을 확보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시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도덕 책임 중 2개 문항(도덕1, 도덕2)의 설명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삭제되었고, 도덕 책임 4문항, 주권자 역할책임 5문항, 사회적 역할책임 4문항, 법적 책임 6문항으로 총 19문항으로 도출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확정된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연구모델의 추정공분산행렬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것이다(최창호·유연우, 2017). 해당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아래 <표 15>과 같다.

<표 15> 모형 적합도(Model fit) 지수 :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

	CMIN	DF	CMIN /DF	GFI	AGFI	IFI	CFI	RMSEA	RMR
판단 기준	≥0.05		≤3.0	≥ 0.8~0.9				≤0.08	≤0.05
모형	343.31	14	2.38	0.92	0.95	0.95	0.94	0.06	0.02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chi^2/df(CMIN/df)=2.38$ 로 기준(3 이하)을 충족했고, GFI=0.92, AGFI=0.95, CFI=0.94, IFI=0.95으로 기준(0.9 이상)을 충족하였으며, RMR=0.02로 적합도 기준(.05 이하)을 충족하였고, RMSEA=0.06로 나타나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Fornell & Lacker, 1981; 우종필; 2022; McDonald & Ho, 2002).

이어서 구성개념과 그것을 측정하는 변수 사이의 일치성을 확인하는 구성타당도 검증하기 위해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집중타당도는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의 일치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집중타당도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1) 표준화 요인적재량이 0.5~0.95 사이의 값을 보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여야 하고, 2)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 AVE) 값이 0.5를 넘어야 하고, 3)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 값이 0.7 이상(0.6 이상)이어야 수용 가능하다고 본다(Fornell & Lacker, 1981).

본 모형의 집중타당도 검증결과(<표 16>), 모든 잠재변수와 관측변수의

관계는 유의하였고, 요인적재량은 .5 이상으로 기준(최소 .50 이상)을 충족하였다. 각 개념의 AVE 값은 .5이상이고, 개념신뢰도(CR) 값도 .7이상으로 확인되어, 이에 문항 19개의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16>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적재량과 집중타당도 검증

		비표준화 계수 (b)	표준 오차 (s.e)	t값	표준화 계수 (β)	평균 분산추출 (AVE)	개념 신뢰도 (C.R)
도덕 책임	도덕3	1.1	0.09	12.36***	0.72	0.69	0.9
	도덕4	1.16	0.09	12.61***	0.74		
	도덕5	1.14	0.09	13.30***	0.79		
	도덕6	1			0.66		
주권자 역할 책임	주역1	0.85	0.06	14.21***	0.7	0.69	0.92
	주역2	0.95	0.07	14.13***	0.70		
	주역3	1.07	0.07	16.07***	0.79		
	주역4	1			0.77		
	주역5	0.97	0.07	14.8***	0.72		
사회적 역할 책임	사역1	1			0.73	0.68	0.92
	사역3	1.0	0.07	13.85***	0.73		
	사역4	0.97	0.07	13.71***	0.72		
	사역5	1.11	0.08	14.6***	0.77		
법적 책임	법적1	1			0.71	0.69	0.93
	법적2	1.06	0.07	14.56***	0.77		
	법적3	1.03	0.07	14.08***	0.74		
	법적4	0.94	0.08	12.5***	0.66		

	법적5	1.04	0.08	14.11***	0.75		
	법적6	1.06	0.08	14.8***	0.74		

다음으로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 문항으로 도출된 모형의 판별타당도 검증에 위해 AVE 제곱근과 상관계수를 비교 확인하였다(Fornell & Lacker, 1981). 그 결과는 <표 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잠재변수의 상관계수가 AVE 값보다 작았다(우종필, 2022).

<표 17> 상관분석 및 판별타당도 검증

	도덕 책임	주권자 역할책임	사회적 역할책임	법적 책임
도덕적 책임	<b>0.83</b>			
주권자 역할책임	0.61	<b>0.83</b>		
사회적 역할책임	0.31	0.54	<b>0.82</b>	
법적 책임	0.52	0.57	0.62	<b>0.83</b>

주) 대각선에 진하게 표기한 수치는 AVE(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이고, 대각선 아래 값은 상관계수임.

이상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출된 자기책임 인식의 4개 하위차원과 각 요인을 설명하는 척도는 총 19개 문항은 <표 18>과 같다.

<표 18>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 하위 차원과 척도

세부 영역	문항	
도덕 책임	도덕3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도덕4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에서 도덕적 원칙을 지킬 책임이 있다.
	도덕5	금융소비자는 투자정보 확인서를 양심있게 작성할 책임이 있다.
	도덕6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 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책임이 있다.
주권자 역할 책임	주역1	금융소비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읽고 이해할 책임이 있다.
	주역2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구매 전 다양한 정보를 찾을 책임이 있다.
	주역3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다른 상품과 충분히 비교해볼 책임이 있다.
	주역4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구매 후 운용보고서 등을 읽고 확인할 책임이 있다.
	주역5	금융소비자는 금융피해 발생 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으려고 노력할 책임이 있다.
사회적 역할 책임	사역1	금융소비자는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형성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사역3	금융소비자는 필요시에 금융회사, 정부에 현명하고 가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사역4	금융소비자는 단체 조직 또는 참여를 통해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사역5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환경, 인권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책임이 있다.
	법적 책임	법적1
법적2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설명서나 약관 등에 고지된 상품 및 계약 정보를 주의 깊게 읽을 책임이 있다.
법적3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게 자신의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법적4		금융소비자는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법적5	계약 체결 시에 하는 서명, 기명날인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의사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이다.
법적6	금융소비자는 권리를 남용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 3. 연구문제2 : 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른 자기책임 인식수준 비교

#### 1)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수준

연구문제 1에서 구분된 자기책임의 하위 차원별로 조사대상자의 인식수준을 살펴보면 <표 19>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자기책임 인식 평균은 5점 척도로 환산했을 때 3.88점으로 전반적으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차원별 자기책임 인식 평균은 법적 책임이 3.95점으로 가장 높았고, 도덕 책임 3.87점, 주권자 역할 책임 3.86점, 사회적 역할책임 3.72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법적 책임의 경우, 결과에 대한 보상, 강제성, 구속력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책임에 대한 인식이 보다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역할 책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는데, 개인의 역할을 확장하여 시장거래의 주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적극적 행위를 포함하는 책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역할책임은 건전한 금융거래와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표 19> 조사대상자의 자기책임 인식수준 (n=420, 단위 : 점)

구분	평균(표준편차)	5점 환산평균 (표준편차)
자기책임 인식(19~95점)	73.77 (9.36)	3.88 (0.49)
도덕 책임 (4~20점)	15.87 (2.30)	3.87 (0.58)
주권자 역할책임 (5~25점)	19.32 (2.98)	3.86 (0.60)
사회적 역할책임 (4~20점)	14.88 (2.46)	3.72 (0.62)
법적 책임 (6~30점)	23.71 (3.37)	3.95 (0.56)

##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책임 인식수준 차이검증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수준을 비교한 결과, 거주지역, 직업, 연령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20>).

거주지역이 서울일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도덕 책임, 주권자 역할책임, 사회적 역할책임, 법적 책임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권리와 책임을 분석한 선행연구(권세훈·반주일, 2021; 한지형·고대균, 2022; 홍미나·김태은, 2022 등)에서도 수도권 지역의 소비자가 비수도권 지역의 소비자에 비해 소비자 책임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바 있다.

서울지역이 정보 접근성, 거래의 용이성,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의 책임인식이 모든 하위 차원에서 낮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복잡한 금융환경, 수도권 집중도, 하향식 발전전략이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오용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직업의 경우, 전문·관리직이 다른 직업에 비해 자기책임 인식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자기책임 인식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주권자 역할책

임, 사회적 역할책임, 법적 책임에서 전문·관리직은 상대적으로 높은 자기책임 인식수준을 보여주었지만, 도덕 책임에서는 직업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선행연구(강지영·최현자, 2021; 권세훈·반주일, 2021)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책임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만, 도덕 책임의 경우, 사후검증에서 고졸과 대학원 이상 집단 간에 구분이 나타났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60대가 20·30대보다 법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60대는 20·30대에 비해 다양한 금융거래 경험을 했을 확률이 높을 것이고, 이러한 경험으로 축적된 금융과 관련된 법 사항들은 금융소비자의 책임인식 수준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2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책임 인식수준 차이 검증

(n=420, 단위 : 점)

변수	구분	자기책임 인식 (19 ~ 95점)		도덕 책임 (4 ~ 20점)		주권자 역할책임 (5 ~ 25점)		사회적 역할책임 (4 ~ 20점)		법적 책임 (6 ~ 30점)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남자	79.92 (9.55)	.33	15.93 (2.32)	.57	19.3 (2.98)	-.12	14.99 (2.62)	.95	23.7 (3.39)	-.06	
	여자	73.62 (9.18)		15.80 (2.28)		19.33 (2.97)		14.76 (2.96)		23.71 (3.36)		
연령	20·30대	73.04 (9.86)	.91	15.61 (2.53)	1.94	19.17 (3.05)	.32	16.00 (2.53)	.41	23.25 (3.59)	a	2.79*
	40·50대	74.12 (9.11)		15.99 (2.11)		19.38 (2.95)		14.81 (2.47)		23.93 (3.23)	ab	
	60대	74.54 (8.81)		16.44 (2.16)		19.45 (2.89)		14.74 (2.30)		24.19 (3.09)	b	
교육 수준	고졸 이하	73.69 (9.41)	1.06	15.48 (2.51)	2.25	19.26 (2.95)	1.14	15.03 (2.71)	1.62	23.90 (3.23)	.21	
	대학 졸업	73.50 (9.26)		15.86 (2.20)		19.23 (2.94)		14.75 (2.45)		23.64 (3.40)		ab
	대학원 이상	75.59 (9.87)		16.40 (2.56)		19.91 (3.16)		15.40 (2.09)		23.85 (3.42)		b

배우자 유무	있음	73.92 (9.36)	.39	15.91 (2.28)		.46	19.35 (3.01)		.34	14.78 (2.42)		-.89	23.86 (3.27)		1.13
	없음	73.56 (9.39)		15.80 (2.34)			19.25 (2.92)			15.00 (2.51)			23.43 (3.50)		
거주 지역	서울	71.07 (9.01)	7.6***	15.31 (2.29)	a	5.51**	18.54 (2.86)	a	6.44**	14.28 (2.32)	a	5.25**	22.93 (3.28)	a	4.75**
	6대 광역시	74.68 (9.08)		16.2 (2.28)	b		19.43 (2.93)	b		15.08 (2.36)	b		23.96 (3.27)	b	
	시 단위 이하	75.04 (9.44)		16.05 (2.30)	b		19.76 (2.98)	b		15.15 (2.55)	b		24.07 (3.42)	b	
직업	전문·관 리직	79.59 (1.0)	3.67**	16.90 (2.20)	b	1.98	21.04 (3.39)	b	3.35**	16.23 (2.31)	b	3.11**	25.36 (3.57)	b	2.44*
	사무직	72.93 (0.34)		15.70 2.27)	a		19.03 (2.76)	a		14.72 (3.58)	a		23.46 (3.37)	a	
	서비스 판매 및 기술· 기능직	73.64 (10.0)		15.89 (2.44)	a		19.39 (3.01)	a		14.67 (2.65)	a		23.67 (3.49)	a	
	자영업	73.3 (6.84)		15.75 (1.96)	a		18.95 (2.19)	a		14.77 (1.99)	a		23.82 (2.80)	a	
	주부	73.16		15.61	a		19.30	a		14.51	a		23.73	a	

	(9.49)			(2.38)			(3.11)			(2.31)			(3.28)	
농축어 업/단순 노무/학 생·무직	73.15 (8.8)	a		15.88 (2.30)	a		19.12 (3.19)	a		14.87 (2.26)	a		23.27 (3.35)	a

\*p<.05, \*\*p<.01, \*\*\*p<.001, † p<0.10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 3) 재무특성과 재무관리역량에 따른 자기책임 인식수준 차이 검증

#### ① 재무특성에 따른 차이 검증

재무상태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도덕 책임, 주권자 역할책임, 사회적 역할 책임, 법적 책임의 인식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표 21>와 같다. 월평균 소득과 총자산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수준을 살펴본 결과, 주권자 역할책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이 상(400만 원 이상)인 집단은 하(250만 원 이하)인 집단에 비해 주권자 역할책임을 높게 인식하였다. 총자산의 경우 도덕적 책임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총자산이 상(43,000만 원 이상)인 집단은 총자산이 하(8,000만 원 이하)인 집단에 비해 도덕 책임 인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득과 자산 등 재무자원을 많이 보유한 금융소비자일수록 기본적 권리 보장과 관련된 주권자 역할책임, 신의성실, 윤리적 행위와 관련된 도덕적 책임 등 개인적 차원의 책임 의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투자 특성에 따라 자기책임 인식수준을 비교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표 22>).

<표 21> 재무상태에 따른 자기책임 인식수준 차이 검증

(n=420, 단위 : 점)

변수	구분	자기책임 인식 (19 ~ 95점)		도덕 책임 (4 ~ 20점)		주권자 역할책임 (5 ~ 25점)		사회적 역할책임 (4 ~ 20점)		법적 책임 (6 ~ 30점)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월평균 소득	상 (400만 원 이상)	74.81 (9.72)	1.73	16.14 (2.23)	1.81	19.73 (3.07)	b	2.83 <sup>†</sup>	15.0 (2.48)	.47	23.93 (3.28)	.68
	중 (25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73.35 (8.66)		15.67 (2.29)		19.15 (2.82)	ab		14.86 (2.27)		23.66 (3.07)	
	하 (250만 원 미만)	72.87 (9.52)		15.73 (2.39)		18.94 (2.95)	a		14.72 (2.62)		23.47 (3.76)	
총 자산	상 (43,000만 원 이상)	74.51 (8.90)	1.29	16.18 (2.04)	b	19.65 (2.89)	1.73	2.79 <sup>†</sup>	14.80 (2.44)	.10	23.87 (3.18)	1.35
	중 (8,000만 원 이상 43,000만원 미만)	74.05 (10.25)		15.91 (2.37)	ab	19.31 (3.20)			14.90 (2.59)		23.92 (3.49)	
	하 (8,000만 원 미만)	72.77 (8.79)		15.53 (2.44)	a	18.99 (2.78)			14.92 (2.35)		23.32 (3.41)	

\*p<.05, \*\*p<.01, \*\*\*p<.001, † p<0.10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22> 금융투자 특성에 따른 자기책임 인식수준 차이 검증

(n=420, 단위 : 점)

변수	구분	자기책임 인식 (19 ~ 95점)		도덕 책임 (4 ~ 20점)		주권자 역할책임 (5 ~ 25점)		사회적 역할책임 (4 ~ 20점)		법적 책임 (6 ~ 30점)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투자 성향	안전투자/ 이자소득형	74.02 (9.06)	1.80	15.96 (2.26)	2.32	19.42 (2.98)	1.72	14.75 (2.36)	1.72	23.87 (3.28)	.85
	주식/고수익채권 /혼합투자형	72.57 (9.31)		15.52 (2.24)		18.93 (2.92)		14.72 (2.49)		23.39 (3.35)	
	공격투자 /주식선호형	74.80 (9.06)		16.13 (2.41)		19.60 (3.0)		15.26 (2.56)		23.80 (3.54)	
현재 보유 금융 투자 상품 <sup>1)</sup>	암호화폐/NFT/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보유	74.21 (9.12)	.342	15.86 (2.15)	.09	19.41 (2.75)	.08	15.12 (2.34)	1.34	23.82 (3.47)	.21
	해외주식/국내주식/고난 도·해외펀드 보유	73.79 (9.18)		15.90 (2.37)		19.29 (3.04)		14.86 (2.37)		23.72 (3.26)	
	국내주식형·혼합형·채권 형펀드/채권/저축성·보장 성보험/예적금 보유	73.04 (10.35)		15.78 (2.30)		19.24 (3.10)		14.52 (2.88)		23.49 (3.58)	
	투자	5년 이하		73.02		.609		15.62		1.49	

기간		(9.08)		(2.34)		(2.89)		(2.31)		(3.43)
	5년 초과	74.14		15.87		19.45		15.02		23.79
	15년 이하	(9.97)		(2.58)		(3,12)		(2.59)		(3.42)
	15년 이상	73.08		16.1		19.34		14.63		24.0
		(9.0)		(2.30)		(2.91)		(2.45)		(3.24)

1) 보유하고 있는 금융투자자산 중 투자위험이 가장 높은 자산을 기준으로 구분함.

\*p<.05, \*\*p<.01, \*\*\*p<.001, † p<0.10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 ② 재무관리역량에 따른 차이 검증

재무관리역량에 따른 자기책임 인식수준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재무관리태도(5~20점 범위)의 평균은 16.07(표준편차 2.16)점으로 조사되었고, 평균 이상이면 재무관리태도가 높은 집단, 평균 미만이면 재무관리태도가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재무관리태도가 높은 집단의 평균은 18.26점이고, 낮은 집단의 평균은 14.74점으로 나타났다.

재무관리기능(5~20점 범위)의 평균은 13.38점(표준편차 2.49점)을 기준으로 재무관리기능이 높은 집단 평균은 16.03점이고, 재무관리기능이 낮은 집단의 평균은 12.06점으로 나타났다.

재무관리태도와 재무관리기능에 따른 자기책임 인식수준 차이를 검증한 결과, 도덕 책임, 주권자 역할책임, 사회적 역할책임, 법적 책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재무관리역량을 구성하는 재무관리태도와 재무관리기능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모든 차원의 자기책임 인식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의 재무상태를 알고, 장기적인 저축,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등 재무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그리고 금융투자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능 역량이 높을수록 도덕 책임, 주권자 역할책임, 사회적 역할책임, 법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표 23> 재무관리역량에 따른 자기책임 인식수준 차이 검증

(n=420, 단위 : 점)

변수		평균 (표준편차)				
		자기책임 인식 (19 ~ 95점)	도덕 책임 (4 ~ 20점)	주권자 역할책임 (5 ~ 25점)	사회적 역할책임 (4 ~ 20점)	법적 책임 (6 ~ 30점)
재무 관리 태도	높은 집단	79.0 (8.62)	17.13 (1.96)	20.72 (2.88)	15.94 (2.53)	25.21 (3.18)
	낮은 집단	70.59 (8.31)	15.1 (2.15)	18.46 (2.7)	14.23 (2.19)	22.79 (3.16)
t-value		9.918***	9.7***	8.08***	7.31***	7.6***
재무 관리 기능	높은 집단	77.86 (8.76)	16.73 (2.19)	20.43 (2.76)	15.94 (2.21)	24.76 (3.27)
	낮은 집단	71.73 (8.99)	15.44 (2.24)	18.76 (2.93)	14.35 (2.42)	23.18 (3.31)
t-value		6.642***	5.6***	5.6***	6.53***	4.64***

\*p<.05, \*\*p<.01, \*\*\*p<.001

#### 4) 심리적 성향에 따른 자기책임 인식수준 차이 검증

통제위치와 조절초점 성향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성향이다. 이에 통제위치 성향에 따라 조사대상자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반복시행하였으나, 군집 간의 이질성이 확연하게 형성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대상자 집단을 조절초점 성향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자 하였으나, 군집 간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통제위치 성향과 조절초점 성향의 평균 점수를 이용하여,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집단을 상, 하로 나눈 후, 각 집단에 따른 자기책임 인식수준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 ① 통제위치 성향에 따른 차이 검증

통제위치 성향에 따른 자기책임 인식수준 차이검증 결과는 다음 <표 24>과 같다. 먼저, 내적통제 성향(2~10점 범위)의 평균은 8.31점(표준편차 1.10점)이었고. 평균 이상이면 내적통제 성향이 높은 집단(평균 9.41점), 평균 미만이면 내적통제 성향이 낮은 집단(평균 7.58점)으로 분류하였다.

내적통제 성향이 높으면, 낮은 경우에 비해 도덕 책임, 주권자 역할책임, 사회적 역할책임, 법적 책임에 대한 인식수준이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내적통제 성향은 내 삶은 내가 결정하며, 보상은 자신의 행위나 노력의 결과로 인한 것이라 믿는 심리이다. 즉, 내적통제가 높을수록 거래에서 발생한 결과를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지각하게 되고, 이는 자기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양동석·조건상, 2019; 고미순, 2020).

외적통제 성향(5~25점 범위)의 평균 점수는 16.10점(표준편차 2.78점)이고, 평균 이상이면 외적통제 성향이 높은 집단(평균 18.05점), 평균 미만이면 외적통제 성향이 낮은 집단(평균 14.10점)으로 분류하였다. 외적통제 성향이 높고 낮은 집단 간에는 자기책임 인식수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4> 통제위치 성향에 따른 자기책임 인식수준 차이 검증

(n=420, 단위 : 점)

변수		평균 (표준편차)				
		자기책임 인식 (19 ~ 95점)	도덕적 책임 (4 ~ 20점)	주권자 역할책임 (5 ~ 25점)	사회적 역할책임 (4 ~ 20점)	법적 책임 (6 ~ 30점)
내 적 통 제	높은 집단	78.70 (8.81)	16.79 (2.18)	20.68 (2.79)	15.81 (2.61)	25.40 (3.10)
	낮은 집단	70.45 (8.2)	15.25 (2.18)	18.39 (2.73)	14.24 (2.13)	22.56 (3.05)
t-value		9.80***	7.14***	8.35***	6.75***	9.25***
외 적 통 제	높은 집단	73.91 (8.75)	15.72 (2.25)	19.37 (2.86)	15.1 (2.31)	23.73 (3.30)
	낮은 집단	73.65 (9.86)	16.0 (2.34)	19.28 (3.08)	14.70 (2.57)	23.69 (3.45)
t-value		.28	-1.23	.31	1.70	.10

\*p<.05, \*\*p<.01, \*\*\*p<.001

## ② 조절초점 성향에 따른 차이검증

조절초점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표 25>와 같다. 향상초점(4~20점 범위)은 평균 13.0(표준편차 2.38)점을 기준으로 향상초점 성향이 높은 집단(평균 14.67점), 낮은 집단(평균 10.84점)으로 구분하였다. 예방초점(5~25점)도 평균 16.87(표준편차 2.99)점을 기준으로 예방초점성향이 높은 집단(평균 19.5점)과 낮은 집단(평균 14.7점)으로 구분하였다.

향상초점 성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도덕책임 인식, 주권자 역할책임, 사회적 역할책임, 법적 책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예방초점 성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도덕책임 인식수준에서

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항상초점이 높은 성향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투자에서 항상초점 성향이 높으면 자신의 투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조절할 가능성 높고(박지환·전무경, 2022), 이는 금융투자에 대한 자기책임 인식수준을 높였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도덕적 책임의 경우, 항상초점 뿐 아니라 예방초점이 높은 집단에서도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정은경(2014)은 도덕적 영역이 사회적 안전 확보를 위해 설정된 규범을 판단하는 영역으로 예방초점과 관련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표 25> 조절초점 성향에 따른 자기책임 인식수준 차이 검증

(n=420, 단위 : 점)

변수		평균 (표준편차)				
		자기책임 인식 (19 ~ 95점)	도덕 책임 (4 ~ 20점)	주권자 역할책임 (5 ~ 25점)	사회적 역할책임 (4 ~ 20점)	법적 책임 (6 ~ 30점)
항상 초점	높은 집단	75.79 (9.23)	16.37 (2.15)	19.89 (2.89)	15.20 (2.49)	24.31 (3.37)
	낮은 집단	71.18 (8.91)	15.22 (2.33)	18.57 (2.92)	14.45 (2.36)	22.92 (3.21)
t-value		5.15***	5.24***	4.61***	3.11**	4.27***
예 방 초 점	높은 집단	74.27 (9.04)	16.14 (2.18)	19.39 (2.85)	14.86 (2.40)	23.86 (3.22)
	낮은 집단	73.36 (9.62)	15.64 (2.38)	19.25 (3.07)	14.88 (2.51)	23.58 (3.49)
t-value		.99	2.28*	.49	-.10	.85

\*p<.05, \*\*p<.01, \*\*\*p<.001

## 5)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에 따른 자기책임 인식수준 차이 검증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 수준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표 26>와 같다. 먼저,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4~20점) 평균은 14.02점(표준편차 2.49점)이고, 평균을 기준으로 자율성이 높은 집단(평균 16.29점)과 낮은 집단(평균 12.24점)으로 구분하였다.

금융투자상품을 선택,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경향이 높은 집단은 자율성이 낮은 집단에 비해 도덕 책임, 주권자 역할책임, 법적 책임 인식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금융투자에서 자율적, 자발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그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자기책임 인식이 높다는 것이다.

윤리적 영역의 선행연구들(구인회, 1999; 권수현, 2008; 김양현 외 3인, 2005; 이양수, 2016; 박찬구, 2006; 변순용, 2004; 안건훈, 2003; 이영록, 2019; 최호진, 2018)에서는 자기책임의 전제조건으로 자유의지, 자유로운 선택을 강조하였고, 소비자책임과 관련된 선행연구(강지영·최현자, 2021; 권지연, 2007; 김종승, 2022; 모운중 외 3인, 2014; 성경희, 2012; 성영애, 2015; Gordon & Lee, 1977; Stampfl, 1979)에서는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법 영역의 선행연구(김강운, 2005; 김경환, 2015; 나현, 2022; 박제인, 2015; 이금옥, 2021; 이현경, 2015; 채동헌, 2015; 최민수, 2016; 허경옥, 1998)에서도 자기결정권, 사적자치의 원칙 등을 통해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이 전제되어야 자기책임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표 26>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에 따른 자기책임 인식수준 차이 검증

(n=420, 단위 : 점)

변수		평균 (표준편차)				
		자기책임 인식 (19 ~ 95점)	도덕 책임 (4 ~ 20점)	주권자 역할책임 (5 ~ 25점)	사회적 역할책임 (4 ~ 20점)	법적 책임 (6 ~ 30점)
금융투자 에서의 자율성	높은 집단	75.92 (9.46)	16.56 (2.21)	19.70 (3.26)	15.1 (2.66)	24.57 (3.32)
	낮은 집단	72.08 (8.94)	15.33 (2.23)	19.01 (2.70)	14.70 (2.3)	23.03 (3.27)
t-value		4.27***	5.626***	2.32*	1.66	4.74***

\*p<.05, \*\*p<.01, \*\*\*p<.001

#### 4. 연구문제 3: 각 차원별 자기책임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각 차원별 자기책임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4가지 차원의 자기책임 인식 수준을 측정된 점수의 합과 각 차원별 자기책임 인식 수준을 각각 적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연구문제 2의 집단간 비교 결과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성별, 연령, 거주지역, 직업, 투자유형, 월평균소득, 금융자산,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기능, 내적통제, 향상초점,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 수준을 각 차원별 책임인식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본 후,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 1) 자기책임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먼저, 도덕 책임, 주권자 역할책임, 사회적 역할책임, 법적 책임의 인식 수

준을 모두 합한 전체 자기책임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분산팽창지수(VIF)가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Durbin-Watson은 1.917로, 통계량이 2에 가깝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의 자기 상관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성태제, 2018).

인구사회학적 특성, 재무특성 중에서는 거주지역, 직업, 투자성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beta = -.149^{***}$ )에 거주하는 금융소비자는 다른 지역 거주자보다 자기책임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소비자권리와 책임을 분석한 선행연구(권세훈·반주일, 2021; 한지형·고대균, 2022; 홍미나·김태은, 2022 등)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서울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정보 접근성, 거래의 용이성, 사회적 인프라 등의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여건이지만, 복잡한 금융환경, 활발한 거래빈도가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에 대한 민감도, 중요도를 낮아지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전문·관리직( $\beta = .128^{**}$ )에 종사하는 경우 다른 직업 집단보다 자기책임 인식수준이 높았다. 전문·관리직은 다른 직업군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았을 것이고, 이는 책임인식 수준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성향의 경우, 위험·수익중립형 투자자들과 비교했을 때, 안정추구형( $\beta = .129^*$ ), 적극투자형( $\beta = .095^*$ )의 자기책임 인식수준이 높았다. 투자성향은 투자 시 수익에 따른 위험에 대한 태도로서(김신·하규수, 2017) 원금손실에 대해 개인이 견딜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투자위험에 대해 적극적 성향, 보수적 성향을 가진 투자자는 투자에 따른 위험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주관적 위험 성향에 따라 투자 의사결정을 하였을 것이고, 이는 투자결과에 대한 수용을 높이며 자기책임 인식수준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적통제 성향이 높을수록, 재무관리태도와 재무관리기능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책임 인식수준이 높아졌으며, 재무관리태도  $\beta=.318^{***}$ , 내적통제  $\beta=.234^*$ , 재무관리기능  $\beta=.109^*$ 으로 재무관리태도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적 통제자는 자신의 행동 결과에 책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다는(고미순, 2020; 양동석·조건상, 2019)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게 나타났으며, 재무관리역량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의사결정과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김정현·최현자, 2011; 김아름·양혜경, 2016; 김범석·이성림, 2022)는 결과를 지지하는 것을 보여준다.

즉, 금융소비자가 서울시 이외 지역에서 거주하고, 전문·관리직에서 일하고, 위험·수익중립형보다는 적극적 투자성향이나 안정적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 전체적인 자기책임 인식수준이 높았다. 또한, 자신의 삶과 성공이 내부에서 기인한다는 믿음이 높을수록, 본인의 재무상태를 잘 알고 재무관리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금융투자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능 역량이 높을수록 자기책임 인식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표 27> 자기책임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s.e	$\beta$		
(상수)		25.942	3.971		6.532	
인구 사회 특성	성별 (여성)	남성	-.444	.804	-.024	-.553
	연령		-.001	.031	-.002	-.035
	거주지역 (시 단위 이하)	서울	-3.061	.888	<b>-.149***</b>	-3.448
		6대 광역시	.198	.913	.009	.217
	직업 (단순노무·학 생·주부 및 기타)	전문·관리직	4.017	1.453	<b>.128**</b>	2.765
		사무직	.451	1.018	.024	.444
		서비스·판매직 및 기술·기능직	-.212	1.304	-.008	-.163
		자영업	.605	1.436	.019	.421
재무 특성	투자유형 (위험수익 중립형)	안정추구형	2.383	.929	<b>.126*</b>	2.565
		적극투자형	2.046	1.000	<b>.095*</b>	2.045
	ln월평균소득		-.031	.154	-.009	-.200
	ln금융자산		-.007	.227	-.001	-.030
심리 성향	내적통제		1.988	.399	<b>.234***</b>	4.988
	향상초점		.032	.174	.008	.183
재무 관리 역량	재무관리태도		1.374	.221	<b>.318***</b>	6.222
	재무관리기능		.410	.178	<b>.109*</b>	2.302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		.328	.301	.049	1.092	
F		14.539***				
$R^2$		.381				
adj. $R^2$		.355				
Durbin-Watson		1.917				

주 : +<.1,\*p<.05, \*\*p<.01, \*\*\*p<.001

## 2) 도덕 책임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기책임의 하위 영역 중 도덕 책임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8>).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서울시( $\beta=-.105^*$ )에 거주하는 금융소비자가 다른 지역 거주자보다 도덕 책임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재무특성 중에서는 안정추구 성향을 가진 투자자가 다른 집단에 비해 도덕 책임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무관리태도( $\beta=.392^{***}$ ),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 $\beta=.143^{***}$ ), 내적통제( $\beta=.122^*$ )가 도덕 책임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무관리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향상초점, 재무관리기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서울 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원금손실 위험정도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을 선호할수록 도덕 책임 인식수준은 높았다. 도덕 책임 인식은 상황에 대한 이성적 인식을 바탕으로 법률 준수를 넘어 도덕 원칙과 사회적 규범을 지키려고 하는 동기로, 금융거래가 안정성 및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불확실한 위험에 대해 소극적 태도이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성향의 금융소비자는 기본적 도의이자 금융거래 안정성·건전성 유지를 위한 도덕적 원칙 및 규범에 대한 평가를 주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어떤 상황의 발생이나 보상을 자신의 행위나 노력의 결과로 믿는 내적통제 성향이 강할수록, 재무관리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 수준이 높을수록 금융거래에서 도덕 및 양심 관련 책임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 수준은 도덕 책임 인식수준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 영역에서 도덕적 책임은 자유

로운 활동과 선택의 보장인 자율성을 전제로(김태훈, 2014; 김혜진, 2018; 안건훈, 2003; 정용교, 2008)하고, 자율적으로 양심에 따라 도덕규범 및 원칙을 인식 및 실천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도덕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자율성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당위적 영역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에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금융거래 환경과 금융소비자의 자율성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28> 도덕 책임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s.e	$\beta$		
(상수)		3.703	.990		3.740	
인구 사회 특성	성별 (여성)	남성	.027	.200	.006	.135
	연령		.008	.008	.047	1.046
	거주지역 (시 단위 이하)	서울	-.530	.221	<b>-.105*</b>	-2.396
		6대 광역시	.288	.228	.055	1.267
	직업 (단순노무·학 생·주부 및 기타)	전문·관리직	.532	.362	.069	1.468
		사무직	.000	.254	.000	-.002
		서비스·판매직 및 기술·기능직	-.035	.325	-.005	-.107
자영업		-.073	.358	-.009	-.203	
재무 특성	투자유형 (위험수익 중립형)	안정추구형	.563	.232	<b>.121*</b>	2.431
		적극투자형	.449	.249	.085	1.802
	ln월평균소득		.007	.038	.008	.179
	ln금융자산		.053	.056	.041	.937
심리 성향	내적통제		.255	.099	<b>.122*</b>	2.570
	향상초점		.057	.043	.059	1.312
재무 관리 역량	재무관리태도		.417	.055	<b>.392***</b>	7.578
	재무관리기능		-.024	.044	-.026	-.543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		.234	.075	<b>.143**</b>	3.119	
F		13.537***				
$R^2$		.364				
adj. $R^2$		.337				
Durbin-Watson		1.925				

주 : +<.1,\*p<.05, \*\*p<.01, \*\*\*p<.001

### 3) 주권자 역할책임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권자 역할책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9>).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서울시( $\beta=-.147^{***}$ )에 거주하는 금융소비자가 다른 지역 거주자보다 주권자 역할책임 인식이 낮았고,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다른 직업 집단보다 주권자 역할책임 인식수준이 높았다. 투자성향이 안전추구형 집단인 경우 주권자 역할책임 인식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내적통제( $\beta=.214^{***}$ ) 성향이 높을수록, 재무관리태도( $\beta=.243^{***}$ )가 긍정적일수록 주권자 역할에 대한 책임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권자 역할책임 인식에서는 재무관리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주었다. 반면에 향상초점, 재무관리기능,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 수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서울 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직업이 전문·관리직이며, 투자원금의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원하고, 예·적금 수준의 이자, 채권이자, 주식배당 정도의 수익을 원하는 경우, 어떤 상황의 발생이나 보상을 자신의 행위나 노력의 결과로 믿는 내적통제 성향이 강할수록, 재무관리태도 수준이 높고 긍정적일수록, 금융거래에서 개인의 영역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책임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의 주권자 역할책임은 거래 당사자로서 권리 실현을 위해 의무로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역할수행에 대한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이를 행하지 않았을 경우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주권자 역할책임은

수행의 범주가 개인 영역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금융거래에서 권리보장은 개인의 의무수행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무교육과 지속적인 캠페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주권자 역할책임 인식에서는 재무관리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였는데, 재무관리태도는 내적, 외적 요인과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기 때문에 단발적 교육보다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표 29> 주권자 역할책임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VIF	
		b	s.e	$\beta$			
(상수)		6.771	1.358		4.986		
인구 사회 특성	성별 (여성)	남성	-.252	.275	-.042	-.918	1.200
	연령		-.007	.011	-.031	-.656	1.274
	거주지역 (시 단위 이하)	서울	-.960	.304	<b>-.147**</b>	-3.161	1.218
		6대 광역시	-.155	.312	-.023	-.496	1.209
	직업 (단순노무·학 생·주부 및 기타)	전문·관리직	1.213	.497	<b>.121*</b>	2.443	1.380
		사무직	-.012	.348	-.002	-.036	1.835
		서비스·판매직 및 기술·기능직	.008	.446	.001	.018	1.393
자영업		-.120	.491	-.012	-.245	1.320	
재무 특성	투자유형 (위험수익 중립형)	안정추구형	.739	.318	<b>.123*</b>	2.326	1.576
		적극투자형	.637	.342	.093	1.863	1.410
	ln월평균소득		.005	.053	.004	.092	1.294
	ln금융자산		.026	.077	.016	.340	1.207
심리 성향	내적통제		.577	.136	<b>.214***</b>	4.234	1.430
	향상초점		.011	.060	.009	.181	1.279
재무 관리 역량	재무관리태도		.335	.075	<b>.243***</b>	4.435	1.691
	재무관리기능		.112	.061	.094	1.839	1.455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		.087	.103	.041	.847	1.323	
F		9.364***					
$R^2$		.284					
adj. $R^2$		.235					
Durbin-Watson		1.995					

주 : +<.1,\*p<.05, \*\*p<.01, \*\*\*p<.001

#### 4) 사회적 역할책임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 역할책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30>와 같다.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이 많아질수록 사회적 역할책임 인식이 낮아졌고, 서울( $\beta = -.134^{***}$ )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역할책임 인식이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전문·관리직( $\beta = .107^{***}$ )은 다른 직업 집단보다 사회적 역할책임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특성 중에서는 적극투자형이 위험수익중립형 집단에 비해 사회적 역할책임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사회적 역할책임과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역할책임은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젊을수록 사회활동을 주도적으로 역할수행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사회적 책임인식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진다. 투자성향의 경우, 수익성에 비중을 두고, 높은 투자수익을 위해 손실위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할수록 사회적 가치, 질서 등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의식이 높았다.

또한, 내적통제 성향이 높을수록, 재무관리태도와 재무관리기능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역할책임 인식 수준이 높아졌으며, 재무관리기능  $\beta = .271^*$ , 재무관리태도  $\beta = .190^{***}$ , 내적통제  $\beta = .160^{**}$ 으로 재무관리기능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관리기능 역량은 재무관리에 대한 기술, 행동, 실천적 영역 등의 의미를 포함하는 능력으로 재무관리기능은 사회적 역할책임 인식에서만 유의한

의미를 나타냈다. 재무관리기능 역량은 금융소비자가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형성 및 유지를 하려고 하고, 금융회사, 정부 등에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고, 단체 조직 또는 참여를 통해 권익 증진에 참여하려고 하거나 환경, 인권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려고 할 때, 행동 및 실천하는 방법을 찾도록 활용 및 응용되어 역할수행을 수월하게 하였을 것이다. 이에 재무관리기능은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데 촉매로 작용하고, 수월하게 하며 사회적 역할책임 인식수준을 높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0> 사회적 역할책임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s.e	$\beta$		
(상수)		6.577	1.134		5.801	
인구사회특성	성별 (여성)	남성	.017	.230	.003	.072
	연령		-.021	.009	<b>-.113*</b>	-2.359
	거주지역역 (시 단위 이하)	서울	-.725	.254	<b>-.134**</b>	-2.860
		6대 광역시	.115	.261	.021	.440
	직업 (단순노무·학생·주부 및 기타)	전문·관리직	.885	.415	<b>.107*</b>	2.134
		사무직	-.015	.291	-.003	-.051
		서비스·판매직 및 기술·기능직	-.366	.372	-.049	-.983
		자영업	.146	.410	.017	.356
재무특성	투자유형 (위험수익 중립형)	안정추구형	.457	.265	.092	1.723
		적극투자형	.600	.286	<b>.106*</b>	2.101
	ln월평균소득		.014	.044	.015	.310
	ln금융자산		-.026	.065	-.019	-.402
심리성향	내적통제		.358	.114	<b>.160**</b>	3.146
	향상초점		-.030	.050	-.029	-.603
재무관리역량	재무관리태도		.216	.063	<b>.190***</b>	3.424
	재무관리기능		.269	.051	<b>.271***</b>	5.283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			-.069	.086	-.039	-.803
F		8.806***				
$R^2$		.271				
adj. $R^2$		.241				
Durbin-Watson		1.908				

주 : +<.1,\*p<.05, \*\*p<.01, \*\*\*p<.001

## 5) 법적 책임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법적 책임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1>과 같다. 분산팽창지수(VIF)가 모두 10 미만으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거주지역, 직업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beta=-.115^*$ )에 거주하는 금융소비자는 다른 지역 거주자보다 법적 책임 인식이 낮았고, 전문·관리직( $\beta=.122^*$ )에 종사하는 경우 다른 직업보다 법적 책임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지만, 내적통제와 재무관리태도는 비슷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자신의 삶과 성공이 자신 내부에서 기인한다는 믿음이 높을수록, 본인의 재무상태를 잘 알고 재무태도가 긍정적이고 바람직할수록 법적 책임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책임은 금융거래 과정에서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소비자의 행위 및 행동에 대한 법적 의미를 인식하고, 행위 결과에 대한 법적 강제성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관리직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경험의 기회가 많을 것이며, 이를 통해 역할수행, 규율과 법적 강제성에 대한 인지책임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 법적 책임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s.e	$\beta$		
(상수)		8.891	1.556		5.715	
인구 사회 특성	성별 (여성)	남성	-.236	.315	-.035	-.748
	연령		.019	.012	.074	1.538
	거주지역역 (시 단위 이하)	서울	-.846	.348	<b>-.115*</b>	-2.432
		6대 광역시	-.051	.358	-.007	-.142
	직업 (단순노무·학 생·주부 및 기타)	전문·관리직	1.387	.569	<b>.122*</b>	2.437
		사무직	.479	.399	.069	1.201
		서비스·판매직 및 기술·기능직	.180	.511	.018	.353
		자영업	.652	.563	.057	1.159
재무 특성	투자유형 (위험수익 중립형)	안정추구형	.624	.364	.092	1.715
		적극투자형	.359	.392	.046	.917
	ln월평균소득		-.056	.060	-.045	-.929
	ln금융자산		-.060	.089	-.032	-.678
심리 성향	내적통제		.798	.156	<b>.261***</b>	5.109
	향상초점		-.006	.068	-.004	-.087
재무 관리 역량	재무관리태도		.406	.086	<b>.260***</b>	4.694
	재무관리기능		.053	.070	.039	.766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		.076	.118	.032	.649	
F		8.679***				
$R^2$		.268				
adj. $R^2$		.238				
Durbin-Watson		1.886				

주 : +<.1,\*p<.05, \*\*p<.01, \*\*\*p<.001

## 6) 각 차원별 자기책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앞서 살펴본 <표 27>~<표 31>의 결과를 근거로, 자기책임 인식 수준 전체와 각 차원별 자기책임 인식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요약하여 <표 32>에 제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금융소비자 집단은 다른 지역 거주집단보다 금융투자에서의 자기책임 인식 수준이 낮았다. 도덕책임, 주권자 역할책임, 사회적 역할책임, 법적 책임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소비자권리와 책임을 분석한 선행연구(권세훈·반주일, 2021; 한지형·고대균, 2022; 홍미나·김태은, 2022 등)에서도 수도권 지역의 소비자 대비 수도권 지역의 소비자에 비해 책임의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연령은 사회적 역할책임에만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사회적 역할책임은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며,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형성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할 책임, 금융서비스와 거래시스템을 이용할 책임, 금융회사와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책임 등 사회활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젊을수록 사회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수행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사회적 역할책임 인식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직업이 전문·관리직인 경우 자기책임 인식 전체, 주권자 역할책임, 사회적 역할책임, 법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다른 직업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전문·관리직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경험의 기회가 많을 것이며, 이를 통해 역할수행, 규율과 법적 강제성에 대한 인지 책임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특성 중에서는 투자성향이 자기책임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안정추구형 집단은 도덕책임, 주권자 역할책임에 대한 수준

이 유의하게 높았고, 적극투자형 집단은 사회적 역할책임 인식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기를 원하고, 예적금 수준의 이자, 채권이자, 주식배당 정도의 수익을 원하는 안정추구형 집단의 경우, 신의성실, 윤리적 행위와 관련된 도덕 책임, 기본적 권리 보장과 관련된 주권자 역할책임 등 개인적 차원의 책임의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안전성보다는 수익성에 비중을 두고, 높은 투자수익을 위해 손실위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적극투자형 집단은 시장거래의 주체로서 사회적 가치, 질서 등과 관련된 사회활동적 책임 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내적통제는 도덕 책임, 주권자 역할책임, 사회적 역할책임, 법적 책임 모든 영역의 자기책임 인식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자신의 삶과 성공은 자기 내부에서 기인한 것으로 믿고, 보상은 자신의 행위나 노력의 결과로 인한 것이라 믿는 내적통제 성향이 높을수록 금융투자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자기책임 인식이 높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가 내재적 동기를 바탕으로 스스로 금융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무관리태도 역시 도덕 책임, 주권자 역할책임, 사회적 역할책임, 법적 책임 모든 영역의 자기책임 인식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본인의 재무상태를 알고, 장기적인 저축,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등 재무관리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전반적인 자기책임 인식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재무관리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하는 것이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을 높이는데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재무관리기능은 사회적 역할책임에서만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분산투자,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자산관리, 전문인력 활용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능 수준이 높을수록 시장거래의 주체로서 사회활동적 책임의식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은 도덕 책임에만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여 주었다. 금융투자상품을 선택,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율적, 자발적인 의사결정을 할수록 신의성실, 도덕적 원칙을 지키고, 타인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며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등의 도덕적 책임을 더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자율성, 주도성이 확보된 거래환경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32> 각 차원별 자기책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독립변수 (괄호 안은 준거집단)		자기책임 인식 전체	도덕 책임	주권자 역할책임	사회적 역할책임	법적 책임	
인 구 사 회 특 성	성별 (여성)	남성					
	연령					(-)*	
	거주지 역 (시 단위 이하)	서울	(-)***	(-)*	(-)**	(-)**	(-)*
		6대 광역시					
	직업 (단순노무· 학생·주부 및 기타)	전문·관리직	(+)**		(+)*	(+)*	(+)*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및 기술·기능직					
자영업							
재 무 특 성	투자 유형 (위험수익 중립형)	안정추구형	(+)*	(+)*	(+)*		
		적극투자형	(+)*			(+)*	
	ln월평균소득						
	ln금융자산						
심리 성향	내적통제		(+)***	(+)*	(+)***	(+)***	
	향상초점						
재무 관리 역량	재무관리태도		(+)***	(+)***	(+)***	(+)***	
	재무관리기능		(+)*			(+)***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				(+)**			
F			14.539***	13.537***	9.364***	8.806***	8.679***
$R^2$			.381	.364	.284	.271	.268
adj. $R^2$			.355	.337	.235	.241	.238
Durbin-Watson			1.917	1.925	1.995	1.908	1.886

주 : +<.1,\*p<.05, \*\*p<.01, \*\*\*p<.001

## V. 결론 및 제언

###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금융투자상품 구매 경험이 있는 만20세~만69세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금융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자기책임의 차원과 척도를 구성하고 각 차원별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투자 과정에서 인식하는 자기책임의 차원과 척도를 구성한 후, 금융소비자의 특성(인구사회학적 특성, 재무특성과 재무관리역량, 심리적 성향,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에 따라 각 차원별 자기책임 인식수준을 비교하였다. 또한, 각 차원별 자기책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투자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인식하는 자기책임의 차원과 척도를 구성하여, 자기책임에 대한 인식을 보다 넓은 의미로 확장하였다. 윤리, 법 영역에서의 책임 개념, 금융소비자보호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책임과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39개의 문항을 추출한 후,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총 25개의 예비문항을 도출하였다. 예비문항을 대상으로 자기책임 차원 분류 및 속성의 정확성 평가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 총 21개 문항, 4개의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4개 요인, 21개의 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검증하고, 집중타당도 및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도덕책임 4문항, 주권자 역할책임 5문항, 사회적 역할책임 4문항, 법적 책임 6문항으로 구성된 19개의 문항을 도출하였다.

둘째, 역할책임 영역은 주권자 역할책임과 사회적 역할책임이라는 두 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주권자 역할책임은 금융거래 당사자로서 개인의 영역

에서 의무를 수행하는 역할,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된 책임을 의미한다. 반면, 사회적 역할책임은 금융시장의 질서, 건전성, 사회적 가치 등 금융시장의 주체자로서의 가치를 고려하며 수행하는 책임으로 주권자 역할책임보다 적극적인 역할이자 가치영역이 확대된 역할을 의미한다. 소비자역할을 분석한 선행연구(김기옥·황혜선, 2009; 김성천, 2012)에서도 소비자역할을 개인의 사적 영역이고,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경제적 역할과 사회적 의식을 갖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적 역할로 구분하여 연구된 바 있다. 금융시장이 발전하고,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의 위치와 역할이 중요해졌고,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세분화 및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거주지역, 직업, 연령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수준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거주지역이 서울인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모든 책임 인식수준이 낮았다. 전문·관리직이 다른 직업에 비해 주권자 역할책임, 사회적 역할책임, 법적 책임의 인식수준이 유의하게 높았고, 60대가 20·30대에 비해 법적 책임에 대한 인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재무상태에 따라 자기책임 인식수준을 비교한 결과 월평균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주권자 역할책임을 높게 인식하였고, 총자산이 많은 집단은 총자산이 적은 집단보다 높은 도덕 책임 인식수준을 보였다. 소득과 자산 등 재무자원을 많이 보유한 금융소비자의 경우, 주권자 역할, 도덕 등 개인적 차원의 책임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재무관리태도 역량과 재무관리기능 역량에 따라 자기책임 인식수준 차이를 검증한 결과, 도덕 책임, 주권자 역할책임, 사회적 역할책임, 법적 책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인의 재무상태를 알고 장기계획을 고려하는 등 재무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그리고 금융투자와 관련

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능 수준이 높을수록 모든 영역의 책임 인식이 높았다. 또한, 통제위치 중 내적통제 성향, 조절초점 중 향상초점 성향은 도덕 책임, 주권자 역할책임, 사회적 역할책임, 법적 책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예방초점은 도덕 책임 인식수준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은경(2014)은 도덕적 영역이 사회적 안전 확보를 위해 설정된 규범을 판단하는 영역으로 예방초점과 관련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섯째,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에 따라 자기책임 인식수준 차이를 검증한 결과, 금융투자상품을 선택,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높은 집단은 자율성이 낮은 집단에 비해 도덕 책임, 주권자 역할책임, 법적 책임 인식수준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금융투자에서 내적 동기에 영향을 받으며, 스스로 행동 주체이자 조절자라고 믿는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도덕적 책임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거래의 당사자로서 개인의 영역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주권자 역할책임 인식이 강하며, 책임 인식과 행위의 결과에 대해 법의 규제 및 강제성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금융소비자의 전체 자기책임 인식수준과 각 차원별 자기책임 인식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거주지역 서울, 내적통제 성향, 재무관리태도는 모든 자기책임 영역에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금융소비자는 도덕 책임, 주권자 역할책임, 사회적 역할책임, 법적 책임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 책임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서울지역이 정보 접근성, 거래의 용이성,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의 책임인식이 낮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만한 결과이다. 소비자정책 관련 선행 연구(권세훈·반주일, 2021; 한지형·고대균, 2022; 홍미나·김태은, 2022 등)에

서 밝힌 바처럼, 복잡한 금융환경, 활발한 금융거래, 수도권 집중도가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고, 이를 오용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내적통제, 재무관리태도는 도덕 책임, 주권자 역할책임, 사회적 역할책임, 법적 책임의 인식수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자신의 삶과 성공은 자기 내부에서 기인한 것으로 믿고, 보상은 자신의 행위나 노력의 결과로 인한 것이라 믿을수록, 본인의 재무상태를 알고, 장기적인 저축,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등 재무관리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전체 자기책임 인식수준이 높아졌다. 이는 본인의 행위나 노력을 중시하는 태도, 본인의 재무상태를 점검하고 장기적인 재무계획을 수립하게끔 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 강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임을 의미한다.

일곱째, 투자유형이 안정추구형, 적극투자형은 위험수익중립형에 비해 전체 자기책임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투자원금의 손실위험 최소화를 원하고, 예적금 수준의 이자, 채권이자, 주식배당 정도의 수익을 원하는 안정추구형 집단의 경우, 도덕 책임, 주권자 역할책임 등 개인적 차원의 책임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그에 반해 안전성보다는 수익성에 비중을 두고, 높은 투자수익을 위해 손실위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적극투자형 집단은 사회적 역할책임 인식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여덟째,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은 도덕 책임에서만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윤리 영역에서 도덕적 책임은 자유로운 활동과 선택의 보장인 자율성을 전제로(김태훈, 2014; 김혜진, 2018; 안건훈, 2003; 정용교, 2008) 한다는 이론적 내용을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도덕 책임은 주권자 역할책임, 사회적 역할책임, 법적 책임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거래에서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원초적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책임인식 수준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도 도덕 책임 인식의 부

족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에 금융소비자가 금융투자에서 자율성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금융거래 환경과 금융소비자의 자율성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홉째, 재무관리기능은 사회적 역할책임 인식에서만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재무관리기능 역량은 재무관리에 대한 기술, 행동, 실천적 영역 등의 의미를 포함하는 능력이다. 즉, 분산투자,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자산관리, 전문인력 활용 등 합리적 금융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능 수준이 높을수록 금융소비자의 사회적 역할책임 인식수준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가 사회적 가치에 책임인식을 갖고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재무관리기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투자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에 대한 의무, 책임은 금융소비자 본인이 지게 된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금융시장의 주권자로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법은 금융소비자의 책임있는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을 기반으로 좁게 해석되었던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을 넓은 의미로 재개념화하고, 하위차원과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하위 차원과 척도는 향후 실증연구에서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고 해석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내적통제 성향, 재무관리태도는 모든 책임 영역에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

다. 내적통제는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적 신념체계로, 환경에 대한 대처행위를 통해 나타난 성과가 다시 피드백되어 내적통제에 영향을 미치며 신념을 형성하게 된다(김학년·윤대혁, 2007). 재무관리태도 또한 내적, 외적 요인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으로 일단 형성되면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지닌다. 그러므로 내적통제, 재무관리태도는 단발성 교육이나 경험보다는 어린 시절부터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신념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 수준이 높을수록 도덕적 원칙, 양심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덕 책임은 기본적으로 당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다. 도덕 책임 인식의 부족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 피해의 전가, 금융시장 거래질서 붕괴, 사회적 비용 초래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금융소비자가 재무관리역량을 함양하고,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자율성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재무관리기능은 사회적 역할책임 인식에서만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재무관리기능 역량은 재무관리에 대한 기술, 행동, 실천적 영역 등의 의미를 포함하는 능력이다. 소비자의 사회적 역할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선행연구(강지영 외 2인, 2021; 김성천, 2012; 유민이, 2017; 전상민, 2020)에서는 적극적, 실천적, 행동, 참여 등이 사회적 역할책임 의미에 공통점을 보였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재무관리기능 역량이 높을수록 사회적 역할책임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동 및 실천을 하면서 사회적 책임인식 또한 강화되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책임인식에 대한 금융교육을 진행할 때는 재무관리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제

공뿐만 아니라 재무관리기능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실습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2. 제언

본 연구는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과 관련한 실증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기책임의 차원과 척도를 구성하고,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덧붙일 수 있다.

첫째, 향후 연구에서는 금융투자 경험 유무, 투자하고 있는 금융상품 유형 등 구체적인 금융투자 특성에 따라 자기책임 인식을 비교분석하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살펴본 통제위치, 조절초점,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 외에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내재적, 외재적 동기요소, 타인의 조력이나 개입 등의 변수를 보다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금융소비자가 인식하는 자기책임을 측정하기 위해 도출된 문항은 총 19문항이고, 집중타당성 및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여 향후 금융소비자의 책임인식 관련 연구에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다른 변수와 함께 자기책임 인식수준을 측정하고자 할 때 문항 구성이 적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척도가 가진 신뢰도 및 타당도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척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단축형 문항 개발을 시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은 도덕 책임에서만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윤리 영역에서 도덕적 책임은 자유로운 활동과 선택의 보장인 자율성을 전제로(김태훈, 2014; 김혜진, 2018; 안건훈, 2003; 정용교, 2008)

한다는 이론적 내용을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금융소비자가 자율적, 자발적이라고 느끼거나 생각하는 심리적, 동기적, 환경적 특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가 느끼고 생각하는 자율성, 자발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 방법론적 측면에서 텍스트 마이닝, FGI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넷째, 금융소비자의 역할책임 영역은 주권자 역할책임과 사회적 역할책임이라는 두 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주권자 역할책임은 금융거래 당사자로서 개인의 영역에서 의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의미한다면, 사회적 역할책임은 금융시장의 주체자로서의 가치를 고려하며 수행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사회적 역할책임은 주권자 역할책임보다 적극적인 역할이자 가치영역이 확대된 역할을 의미한다. 소비자연구에서는 소비자역할을 분석한 선행연구(김기욱·황혜선, 2009; 김성천, 2012; 박명희·박미혜, 2005)가 다수 나타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금융소비자의 역할책임을 기초하여 실태 연구, 증대방안, 역할 영역 구체화 등 다양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의 개념을 넓게 정의하고, 각 하위차원을 구분하고, 이를 각각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구성한 본 연구는 금융소비자 교육적 측면, 정책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금융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책임인식 함양을 위해 강조할 부분, 각 차원별 책임인식 향상을 위해 꼭 포함시켜야 할 내용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인식수준을 측정한 축적된 연구자료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책임있는 금융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공익광고 등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투자 과정에서 인식하는 자기책임의 개념을 확장하고, 그 하위차원과 척도를 구성하였으며,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후속 실증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책임 있는 투자문화 정착과 성숙한 소비자 역할 강조에 필요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하는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강지영·최현자(2021), 금융투자자의 자기책임 인식 수준 및 결정요인 : 펀드 투자 관련 자기결정성과 투자권유 서비스의 질 중심으로, 금융소비자연구 11(2), 6-26.
- 강지영·서가연·최현자(2021), 금융소비자시민성의 개념 정립과 척도 개발 연구, 금융소비자연구 11(3), 5-40.
- 강영애·최승담(2016), 메시지 프레이밍이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방문객 행동에 미치는 영향-조절초점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40(5), 217-232.
- 고미순(2020), 대학생의 내부통제성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탐색행동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학회지 1(1), 39-53.
- 고형석(2020), 소비자권리보장을 위한 소비자기본법의 과제에 관한 연구, 소비자법연구 6(3), 9-62.
- 고홍석(2015),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의 적합성 원칙, 민사판례연구 37, 1273-1340
- 구인회(1999), 행위와 도덕적 책임에 관한 고찰, 철학연구 47, 357-375.
- 권오승(2019), 계약자유와 공정거래, 경쟁법연구 40, 117-141.
- 권대우(2007), 민법과 소비자보호법, 민사법학 36, 127-149.
- 권세훈·반주일(2021), 금융지식이 금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재무관리학회 38(4), 29-60.
- 권수현(2008),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대립 해소를 위한 방법론적 대안-데닛의 양립론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35(0), 47-73.
- 권지연(2007), 소비자의 권리 및 책임의식과 에너지, 수자원 소비행동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권혜진·이기춘(2006), 소비자의 자율성에 관한 이론탐색적 연구, 소비자학연

구 17(3), 59-78.

금융감독원(2016), 금융누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금융회사의 판매준칙 준수 정착 병행-, 금융감독원 브리핑 자료, 2016.07.05..

금융감독원(2019),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결과

금융감독원(2019), 금융분쟁조정위원회, DLF 투자손실 40~80% 배상 결정,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9.12.05.

금융감독원(2020),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0.07.01.

금융감독원(2021),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종사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안내자료 게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03.24.

금융감독원(2021),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04.06.

금융감독원(2021),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현장의 관행을 합리화하겠습니다.-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 예고(6.3.~6.2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06.03

금융위원회(2022),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제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07.15.

금융위원회(2022),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관련, 도덕적 해이 및 민간은행으로의 책임전가 비판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 2022.07.14.

김강운(2005),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의의, 법학연구 20, 161-179.

김경환(2015),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설명의무의 객관적·주관적 성립 범위, 민사판례연구 37, 1231-1272.

김규태(2001), 교육적 책무성의 개념적 구조, 교육행정학연구 19(2), 287-308.

- 김기옥(2007), 현대 소비자의 소비생활복지 : 자기결정성이론의 적용, 소비자학연구 18(4), 47-65.
- 김기옥·황혜선(2009), 현대사회의 소비자역할 확장에 따른 소비자운동의 인식:소비자역할과 소비자운동의 척도개발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20(4), 153-185.
- 김민정(2017), 펀드상품 가입단계별 금융소비자의 책무 이행에 관한 연구-펀드투자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3(1), 55-83.
- 김민정, 김은미, 장연주(2021), 가계의 재무관리역량이 재무웰빙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7(2), 91-116.
- 김범석·이성립(2022), 소득계층에 따른 재무역량 차이에 인터넷정보 활용이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33(6), 17-32.
- 김성천(2012), 소비자권리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소비자정책동향 33, 19-38.
- 김성천·정대표(2012),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보고서, 1-148.
- 김소연·이예린·구철모(2021), 국제학술대회 참가자의 동기요인과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자기결정이론과 조절초점이론을 적용하여,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21(2), 79-101.
- 김신·하규수(2017),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성향과 투자정보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2(2), 21-29.
- 김아름·양혜경(2016), 사회초년생의 금융이해력과 재무스트레스가 재무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Financial Planning Review* 9(4), 79-105.
- 김아영(2002),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른 학습동기 유형 분류체계의 타당성, 교육심리연구 16(4), 169-187.
- 김양현·노영란·변순용·임채광(2005), 책임개념에 대한 실천윤리적 해명, 범한

- 철학회 39(4), 291-328.
- 김연숙(2008), 소비자불만시 소비자의 책임행동에 관한 연구-‘소비자의식’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논문
- 김정현·최현자(2011),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 개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4(3), 1-36.
- 김정현·최현자(2012), 우리나라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소비자학연구 23(1), 229-254.
- 김종승(2022), 금융거래에서의 자기책임 원칙 적용에 관한 소고, 금융소비자연구 12(2), 115-151.
- 김창이·황덕순(2016), 재무상담 및 재무교육이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에 미치는 영향, *Financial Planning Review* 9(4), 49-78.
- 김태훈(2014), ‘책임’덕목에 관한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43, 1-19.
- 김학년·윤대혁(2007), 성격유형과 통제위치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관리연구 14(s), 65-91.
- 김혜미(2022). 투자를 이용한 기만에 관한 형사법적 판단의 소고-‘자기책임의 원칙’과의 조화를 바탕으로, 고려법학 107, 217-260.
- 김혜연·김시월(2014), 소비자의 사회적책임 의식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17(1), 1-24.
- 김혜진(2018), ‘도덕적 책임’ 형성을 위한 교육방안 연구, 윤리연구 121, 57-85.
- 나현(2022), 자기책임의 원칙과 민사소송법상의 책임 : 기관력을 중심으로, 민사소송 :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26(1), 1-44.
- 노형식(2016),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에 대한 평가, 주간금융금융브리프 25(29), 12-13.

- 맹수석(2013), 금융투자상품판매시 금융기관의 설명의무, 법학연구 24(1), 631-665.
- 맹수석(2018), 소비자권리의 기본권성과 헌법상 보장, 경제법연구 17(2), 241-265.
- 모운중, 채란, 곽민주, 이희숙(2014), 한중 대학생의 소비자권리와 책임에 대한 의식, 생활과학연구논총 18(2), 181-203.
- 박명희·박미혜(2005), 소비자주권 강화에 따른 가버넌스 형성을 위한 소비자 역할 및 소비자정책, 소비자학연구 16(4), 35-55.
- 박제인(2015), 자기책임의 원칙과 보호의무\_대법원 2014. 8. 21. 선고2010다92438전원합의체 판결, 인권과정의 451, 101-120.
- 박주영·서재범(2010), 통제위치와 재무관리행동 ; 한미 비교 연구, 소비자학연구 21(3), 263-288.
- 박지환·전무경(2022), 조절초점이 주도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일 희망과 대인 공정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13(3), 261-279.
- 박찬구(2006), 개념과 주제로 본 우리들의 윤리학, 서광사
- 박형준(2021), OECD의 금융 이해력을 위한 핵심 역량, 금융교육연구 6, 71-96.
- 변순용(2004), 현대윤리학에서의 책임윤리에 대한 규범적 접근, 한국윤리학회 55(1), 149-171.
- 서정희, 이기춘(1991), 소비자주권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2(1), 58-75
- 성경희(2012), 소비자 주권과 권리의 관계 검토 및 소비자 의무의 내용 설정,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51(1), 49-63.
- 성영애(2015),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정책심포지엄 2015(2), 35-57.
- 성창훈·박상혁(2016), 조절초점이 씨름선수의 동기 수준에 미치는 영향, 체

- 육과학연구 27(3), 656-665.
- 성태제(2016), spss/amos를 이용한 알기쉬운 통계분석, 학지사
- 성희활(2009),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규제에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인  
권과 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389, 56-79.
- 심영(2021),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20(2),  
81-119.
- 심현정·김민정·최현자(2018), 소비자의 보험소비만족에 관한 융합연구 : 자기  
결정성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융합학회 9(5), 157-169.
- 안건훈(2003), 자유의지, 도덕적 책임 그리고 도덕교육, 아시아교육연구 4(2),  
39-59.
- 안서원·안광호(2015), 행동적 의사결정론, 법무사.
- 안수현(2020),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의견과 몇가지 과제, 한국금융소비  
자학회 정책심포지엄 2020(2), 1-4
- 양동석·조건상(2019), 축구클럽에 참여한 남자 중학생의 내적동기가 책임감  
및 역할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7(3), 309-321.
- 오혜영(2015), 금융소비자의 성향과 태도; 조절초점과 손실회피성향에 대한  
처리 유창성이 금융상품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  
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 141-163.
- 우종필(202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
- 유민이(2017), 시민의 정책참여 영향요인 분석 : 온라인 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기학보 31(2), 129-159.
- 육성욱·김삼원(2020), 개인의 사회적 책임:척도개발, 경영교육연구 35(5),  
467-480.
- 윤태호(2019),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용의도 및 이  
용에 관한 연구: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성대

- 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 이금옥(2021), 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분석, 동북아법연구 15(2), 183-209.
- 이길환·서정민·이일우(2012), 대학생의 통제위치가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4(3), 299-314.
- 이명희(2008),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서울.
- 이명희·김아영(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 이병기(2015), 자기결정성 동기이론에 의한 독서동기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3), 311-332.
- 이상민(2020),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민법상의 계약취소 가능성에 관한 법적 연구-라임무역금융 펀드 사건을 중심으로-, 상사관계연구 33(4), 227-264.
- 이영록(2019), 책임의 의미와 성격에 관한 역사적 탐색, 일감법학 42, 195-221.
- 이양수(2016), 도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 : 상호신뢰 책임을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31, 57-100.
- 이현경(2015), 자기책임의 원칙과 카지노 사업자의 보호의무 : 대법원2014. 8. 21. 선고2010 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하여, 법경제학연구 12(2), 105-147.
- 이현진·조혜진·최현자(2014), 보험이해력과 자기결정성이 생명보험 소비자의 후회감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25(5), 189-213.
- 장연주·최현자·한지형(2018), 보험소비자의 권리 및 책임의식과 보험구매 의사결정 행동,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9), 454-467.

- 전상민(2020), 소비자 사회적 책임의 실천 실태 및 증대 방안 연구, 소비자 정책교육연구 16(2), 1-26.
- 전한덕(2021),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보험법연구 15(2), 259-288.
- 정용교(2008), 경제윤리학의 등장과 학교 경제교육의 방향 탐색, 윤리교육연구 16, 191-208.
- 정은경(2014), 도덕적 판단에서 권력의 효과 : 접근/억제인가, 향상/예방인가.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8(1), 69-81.
- 조혜진·한지형(2020), 자율적 보험구매의사결정과정 및 보험구매 결정요인 연구, 소비자학연구 31(1), 203-222.
- 채동현(2015),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와 책임의 법률관계\_자산운용회사의 판매 책임 관련 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 BFL 71호, 15-32.
- 천성용·윤희식(2014), 조절초점과 해석수준이 금융상품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학회지 39(1), 69-81.
- 최민수(2016), 자기책임의 원칙과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_대법원 2014. 8. 21. 선고2010다92438 전원, 재산법연구 33(2), 126-167.
- 최성욱·이상현·임명성(2012), 투자위험감수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에 관한 연구-IT서비스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경영학회지 13(5), 81-106.
- 최승재(2008), 금융시장에서의 금융소비자의 행동양태를 고려한 투자자보호 규범의 설계에 대한 연구=소위 '행동경제학'적 관점을 반영하여, 증권법연구 9(2), 227-270.
- 최창호·유연우(2017), 탐색적요인분석과 확인적요인분석의 비교에 관한 연

- 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5(10). 103-111.
- 최현민(2021),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금융소비자연구* 11(2), 121-147.
- 최호진(2018), 책임개념의 변화와 그 본질-책임이론 발전을 중심으로-, *법학논집* 32(2), 165-192.
- 표준투자권유준칙(2021)
- 하영원·김영두(2011), 조절초점이 금융소비자의 투자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영연구원* 40(3), 605-631.
- 한지형·고대균(2022), 소비자권리 및 책임의식과 지역 격차, *소비자문제연구* 53(2), 211-246.
-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본부(2008),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1-33.
- 허경옥(1998), 소비자권리와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식에 관한 분석, *소비자학연구* 9(3), 79-90.
- 허세은(2016), 자본시장법상 손해 및 부당이득 정리, *증권법연구* 17(3), 225-257.
- 홍미나·김태은(2022), 소비자 책임인식 구매단계의 지속가능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소비자 공적 참여경험의 조절효과, *소비자문제연구* 53(2), 115-143.

<해외문헌>

- Anderson, C. R. (1977), "Locus of Control, Coping Behavior, and Performance in a Stress Setting :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2(4), 446-451.

- Archie B. C.(1991),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ward the Moral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Stakeholders, *Business horizons*, 39-48.
- Brewin, Chris R. & Shapiro, David A.(1984), Beyond locus of control :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positive and negative outcomes,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75(1), 43-49.
- Brockner, Joel, & Higgins, E. Tory.(2001), Regulatory Focus Theory :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Emotions at Work,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86(1), 35-66.
- Carroll, A. B.(1991),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Toward the Moral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Stakeholders, *Business Horizons*, 39-48.
- Davis, R. (1979), Comparison of consumer acceptance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Proceedings of the 25th Annual Conferenc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68-70.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Deci. E. L., & Ryan, R. M. (2008), Self-Determination Theory: A Macrotheory of Human Motivation, Development, and Health, *Canadian Psychology* 49(3), 182-185.
- FINRA (2009), Annual Financial Report
- Fornell claes & Larcker, D. F. (1981),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Algebra and statistic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3), 382-388.

- Fornell, C. & Larcker, D. F. (1982),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 algebra and statistics, division of research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working paper no.266.
- Gagné, Marylène. (2003), The Role of Autonomy Support and Autonomy Orientation in Prosocial Behavior Engagement, motivation and emotion 27, 199-223.
- Gagné, Marylène. & Deci, E. L. (2005),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work motivat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4), 331-362.
- Gordon, L. E. & Lee, Stewart M. (1977), Economics for Consumer, New York: D. Van Nostrand company
- Greeberger, D. B., Stephan S, Larry L. C., & Randall B. D. (1989). The Impact of personal control on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rocess. 43(1): 29-51.
- Han, Y. M., Han, D. W., et al. & Choi, H. S. (2005), The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and regulatory focus on intrinsic motivation.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Journal, 56-57.
- Higgins, E. Tory. (1997), Beyond pleasure and pain. American psychologist, 52(12), 1280.
- Higgins, E. Tory. (1998), Promotion and Prevention : Regulatory Focus as A Motivational Principle,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 1-46.
- Higgins, E. T., Friedman, R. S., Harlow, R. E., Chenidson, L., Ayduk, O.

- N. & Taylor, A. (2001), Achievement orientations from subjective histories of success: Promotion pride versus Prevention prid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1), 3-23.
- Jonas. H. (1979), *Das Prinzip Verantwortung*, Frankfurt a. M
- Jonas. H. (1987), *Technik, Medizin und Ethik*, Frankfurt a. M
- Hart, H. L. A. (1968), *Punishment and responsibility: Essays in the philosophy of Law*, OXFORD university press.
- Kashyap, R. & Iyer, E. S. (2009), Not everybody wants to save the word, *journal of financial services marketing* 14, 118-134.
- Lenk, H. (1987), Über Verantwortungsbegriffe in der Technik, in: Lenk, H. und Rophol, G.(Hrsg.): *Technik und Ethik*, Stuttgart, 112-148.
- Lenk, H. (1992), *Zwischen Wissenschaft und Ethik*, Frankfurt a. M
- Liberman, Nira., Idson, L. Chen. & Higgins, E. Tory. (2005), Predicting the intensity of losses vs. non-gains and non-losses vs. gains in judging fairness and vale: A test of the loss aversion explan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1(5), 527-534.
- McDonald, R. P., & Ho. Moon-ho Ringo. (2002), Principles and practice in reporting structural equation analyses, *Psychological Methods* 7(1), 64-82.
- Sharma, Renuka., Metha, Kiran. & Vyas, Vishal. (2020), responsible investing : a study on non-economic goals and investors' characteristic, *Applied Finance Letters* 9, 63-78.
- Rotter, J. B. (1966), "Internal Versus External Locus of Control and Decision Tim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8,
- Siegfried Macho & Thomas Ledermann. (2011), Estimating, testing, and

comparing specific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 the phantom model approach, *Psychol methods* 16(1), 34-43.

Srull, T. K. & Karabenick, S. A. (1975), "Effects of Personality and Situational Locus of Control Congru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4), 617-628.

Stampfl. R. W. (1979), Family research: Consumer education needs in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Home Education*, 71(1), 22-27.

Vyasa, Vishal., Mehta, Kiran. & Sharma, Renuka.(2020), Investigating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behaviour of Indian investor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journal of sustainable finance & investment*, 1-23.

## ABSTRACT

### Analysis of Self-Responsibility Dimensions and influencing factors of Financial Consumers

Koo, Ji Yeon.

Dept. of Living Culture and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vestment is an economic choice to renounce certain present consumption for uncertain future expected returns. Investment risk refers to the uncertainty of experiencing losses, as well as the volatility of investment returns. The essence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is their investment nature, which means that in order to achieve high returns, one must bear high risks, and the decision-maker is obliged to bear the consequences of risk, whether they are positive or negative.

In order for policies aimed at preventing and remedying harm to financial consumers to be effectively implemente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However, responsible decision-making and behavior on the part of financial consumers can also be seen as essential. If financial consumers do not have sufficient recognition of their self-responsibility, it can be difficult

for them to guarantee their sovereignty and rights in the event of financial harm, and it can also impose limit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other words, self-responsibility recognition can be seen as the minimum means by which financial consumers can protect themselves.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examine in-depth the self-responsibility recognized by financial consumers in the process of financial investment. Based on prior research in the fields of ethics, law, and related legislation, we will construct sub-dimensions and scales of self-responsibility recognized by financial consumers. Furthermore, Based on prior studies such as consumer studies, psychology, we will examine psychological tendencies, financial management capabilitie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self-responsibility. By doing so, we intend to compare the levels of self-responsibility recognition across different dimension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competencies of financial consumers. Additionally, we aim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self-responsibility recognition in each dimension.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the study focused on adult men and women aged 20 to 69 residing in the country who had experience purchasing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The sample was limited to this target group, and a stratified sampling method was employed based on gender and age. A total of 420 participants' data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hich employed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analysis, t-tests, chi-square analysis,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by constructing the dimension and scale of self-responsibility recognized by financial consumers in the entire process of financial investment, the recognition of self-responsibility was expanded in a broader sense. For 4 factors and 21 questions derived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factor structure was verified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intensive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were confirmed. Finally, 19 questions were derived consisting of 4 questions of moral responsibility, 5 questions of sovereign role responsibility, 4 questions of social role responsibility, and 6 questions of legal responsibility. These sub-dimensions and scales are expected to be used to measure and interpret financial consumers' self-responsibility in multiple dimensions in future empirical studies.

Second, the role responsibility consisted of two factors: sovereign role responsibility and social role responsibility. Sovereign role responsibility refers to responsibilities related to the role played by individual parties to financial transactions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and guarantee basic rights. On the other hand, social role responsibility is a responsibility related to the role to be performed based on the importance of the market as a whole and social values. As the financial environment rapidly changes and becomes more complex, the role required by financial consumers is also subdivided and expanded.

Third, among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the level of self-responsibility recognition financial consumers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residential area, occupation, and age.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level of self-responsibility recognition according to financial status, the group with high monthly average income recognized higher sovereign role responsibility than the group with low total assets.

Fourth,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self-responsibility recognition according to financial management attitude competency and financial management function competency,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both moral responsibility, sovereign role responsibility, social role responsibility, and legal responsibility.

Fifth, when examining the differences in self-responsibility recognition based on locus of control, individuals with high levels of internal locus of control exhibited significantly higher recognition of moral responsibility, the role of the sovereign, social role responsibility, and legal responsibility. Among individuals with high levels of promotion-focused tendencies, their recognition of moral responsibility, the role responsibility of the sovereign, social role responsibility, and legal responsibility were all significantly higher compared to those with low promotion-focused tendencies. On the other hand, only moral responsibility recognition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individuals with prevention-focused tendencies.

Sixth, when examining the differences in self-responsibility recognition based on autonomy in financial investment, individuals with a tendency to make autonomous decisions in the process of selecting and purchasing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showed higher levels of moral responsibility recognition, the role responsibility of the sovereign, and legal responsibility recognition compared to those with low autonomy.

Seventh, an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evel of self-responsibility recognition in each dimension revealed that financial consumers residing in Seoul showed lower levels of recognition for all aspects of self-responsibility compared to residents in other regions.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is is due to the complex financial environment, active financial transactions, and the concentration of financial activ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which can lower the sensitivity of financial consumers to self-responsibility and lead to potential misuse.

Eighth, among individuals with a conservative investment style who prioritize minimizing the risk of capital loss, there was a higher recognition of moral responsibility, the role responsibility recognition of the sovereign, and other individual dimensions of responsibility. Conversely, the group with an aggressive investment style, which actively accepts the risk of loss for higher investment returns, showed a higher of social role responsibility only.

Ninth,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financial management attitudes had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moral responsibility, the role responsibility of the sovereign, social role responsibility, and legal responsibility. Believing that one's life and success originate from within oneself and emphasizing one's actions and efforts, as well as cultivating attitudes of examining one's financial situation and establishing long-term financial plans, are important tasks for enhancing financial consumers' self-responsibility recognition.

In terms of financial investment, it was found that higher levels of

autonomy were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moral responsibility perception. This implies that in order to strengthen financial consumers' recognition of self-responsibility, it is important to provide an environment in which they can make their own decisions in financial transactions and establish protective measures for autonomy.

Furthermore, Financial management competence have shown significant influence on social responsibility recognition. As individuals possess higher competence in making rational decisions and choices related to financial investments, they tend to develop a greater sense of social responsibility as active participants in the market. Therefore, to foster the social responsibility recognition of financial consumers, it appears necessary to provide educational programs that offer information and training to enhance financial management competence.

The self-responsibility of financial consumers is a concept that serves as a prerequisite for the realization of rights and the advancement of consumer protection in the financial market. Clearly recognizing their self-responsibility allows financial consumers to protect themselves through minimum necessary means. In this regard,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as it discusses the responsibility of financial consumers that is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of a mature investment culture and a fair financial market.

It is meaningful in that it organizes the concepts and categories of self-responsibility and prepares a tool to measure self-responsibility recognition by organizing the sub-dimensions and measures of self-responsibility recognized by financial consumers. It can be used as a

useful indicator for measuring and evaluating self-responsibility recognition, and furthermore, it can help to explore education and program strategies to foster self-responsibility recognition.

## < 부 록 > 설 문 지

조사대상:

-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성인 소비자 총 400명
- 연령대(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성별 유의할당

[Screening Question]

선문1. 귀하께서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로 → 설문종료

### I. 금융투자 경험

1. 귀하에게 해당되는 금융투자상품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구분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현재보유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
채권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채권, 주식 혼합)		
국내 주식형 펀드		
해외 주식형 펀드		
고난도 펀드 (ex. DLF, ETF, 사모펀드, 레버리지투자상품 등)		
국내주식		
해외주식		
파생결합증권 (ELS, DLS, ELW 등)		
파생상품 (선물, 옵션)		
암호화폐		
NFT(영상, 게임, 예술품 등)		

2. 귀하께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초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적어주세요)

약                    년                    개월

3. 귀하의 투자성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투자자 유형은 무엇입니까?

번호	원금손실위험	유형
①	매우 높음 ↑ ↓ 매우 낮음	공격투자형
②		주식선호형
③		주식형펀드 선호형
④		고수익채권 선호형
⑤		혼합투자형
⑥		안전투자선호형
⑦		이자소득형 (예적금 선호)

4. 귀하께서 금융상품투자를 통해 평균적으로 기대하는 수익과 감수할 수 있는 손실의 수준을 적어주십시오.

기대수익 수준 :                    %

손실감내 수준 :                    %

◆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하는 전 과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1	2	3	4	5
2	나는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할 때, 종종 부담감을 느낀다.	1	2	3	4	5
3	주변 사람들은 내가 금융상품 투자를 잘한다고 평가한다.	1	2	3	4	5
4	나는 최근에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하여 새롭게 배운 지식이 있다.	1	2	3	4	5
5	나는 금융투자상품을 결정할 때, 주로 금융회사나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의견을 따른다.	1	2	3	4	5
6	나는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하고 구매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낀다.	1	2	3	4	5
7	나는 금융투자상품 정보를 탐색하고 비교하는 것에 능숙하다.	1	2	3	4	5
8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금융상품 투자를 잘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9	나는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할 때, 내 생각과 판단에 의해 결정한다.	1	2	3	4	5
10	나는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하고 구매하는 과정에서 지인에게 자주 도움을 요청한다.	1	2	3	4	5

◆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삶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1	2	3	4	5
2	인생의 성공은 운명이나 행운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1	2	3	4	5
3	나는 종종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1	2	3	4	5
4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1	2	3	4	5
5	인생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1	2	3	4	5
6	인생의 기회는 사회적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1	2	3	4	5
7	나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얻지 못하는 것 같다.	1	2	3	4	5
2	나는 자라면서 부모님이 참기 어려운 일을 저지른 적이 있다.	1	2	3	4	5
3	성공적으로 일을 마친 후에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1	2	3	4	5
4	나는 자라면서 종종 부모님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1	2	3	4	5
5	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만든 규칙과 규제를 가능한 한 지키려고 노력했다.	1	2	3	4	5
6	나는 자라면서 부모님이 반대하시거나 싫어하시는 일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7	나는 새롭게 시도한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편이다.	1	2	3	4	5
8	나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수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1	2	3	4	5
9	중요한 일을 할 때, 내가 계획했던 것만큼 잘 해내지 못하는 것 같다.	1	2	3	4	5
10	나는 내 삶이 성공을 향해 가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11	나는 흥미가 생기거나 열심히 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든 취미 활동이 거의 없다.	1	2	3	4	5

◆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장·단기 재무목표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정기적으로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	5년 후 혹은 10년 후 내 재무상태가 어떨지 생각해 보는 것은 성공적인 재무관리에 도움이 된다.	1	2	3	4	5
4	나의 자산과 부채가 얼마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5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재무상황을 점검한다.	1	2	3	4	5
6	나는 여러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분산투자함으로써 투자 위험을 줄인다.	1	2	3	4	5
7	금융상품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한다.	1	2	3	4	5
8	금리나 환율변동 등 금융환경 변화에 관심을 갖고, 나의 자산관리에 적용할 수 있다.	1	2	3	4	5
9	나는 투자에 대해 조언을 구할 전문가(은행이나 증권회사 직원, 재무설계사 등)를 찾아갈 수 있다.	1	2	3	4	5
10	나의 위험감수성향(예 : 위험회피 - 위험선호)에 알맞은 상품(예 : 정기예금 - 파생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1	2	3	4	5
11	나는 주식, 주식형펀드, ELS의 수익과 위험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1	2	3	4	5
12	나는 채권투자를 할 때 만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을 안다.	1	2	3	4	5
13	나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차이점을 알고 있다.	1	2	3	4	5
14	나는 비교공시를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금융상품 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1	2	3	4	5
15	나는 주식투자와 비교할 때, 적립식펀드 투자의 장점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5

◆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매우 아 니 다	아 니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 시 법적 구속력이 없어도 타인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고 행동할 책임이 있다.	1	2	3	4	5
2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계약 및 해지 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책임이 있다.	1	2	3	4	5
3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1	2	3	4	5
4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에서 도덕적 원칙을 지킬 책임 있다.	1	2	3	4	5
5	금융소비자는 투자정보 확인서를 양심있게 작성할 책임이 있다.	1	2	3	4	5
6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 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책임이 있다.	1	2	3	4	5
7	금융회사의 부당한 거래를 알게 되면, 이를 시정, 고발할 책임이 있다.	1	2	3	4	5
8	금융소비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읽고 이해할 책임이 있다.	1	2	3	4	5
9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구매 전 다양한 정보를 찾을 책임이 있다.	1	2	3	4	5
10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다른 상품과 충분히 비교해 볼 책임이 있다.	1	2	3	4	5
11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구매 후 운용보고서 등을 읽고 확인할 책임이 있다.	1	2	3	4	5
12	금융소비자는 금융피해 발생 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으려고 노력할 책임이 있다.	1	2	3	4	5
13	금융소비자는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1	2	3	4	5
14	금융소비자는 정보 획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	1	2	3	4	5

	여할 책임이 있다.					
15	금융소비자는 공정한 공정거래질서 형성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1	2	3	4	5
16	금융소비자는 금융서비스와 거래시스템을 적절하고 건전하게 이용할 책임이 있다.	1	2	3	4	5
17	금융소비자는 필요시에 금융회사, 정부에 현명하고 가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1	2	3	4	5
18	금융소비자는 단체 조직 또는 참여를 통해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1	2	3	4	5
19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환경, 인권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책임이 있다.	1	2	3	4	5
20	금융소비자는 불법 및 불공정한 방식을 통해 거래되는 금융상품을 선택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1	2	3	4	5
21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설명서나 약관 등에 고지된 상품 및 계약 정보를 주의 깊게 읽을 책임이 있다.	1	2	3	4	5
22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게 자신의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1	2	3	4	5
23	금융소비자는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1	2	3	4	5
24	계약 체결 시에 하는 서명, 기명날인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의사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이다.	1	2	3	4	5
25	금융소비자는 권리를 남용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1	2	3	4	5



6. 귀하의 월평균 소득(세전)은 얼마입니까?

※ 급여, 상여금,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총 연간소득을 12로 나눈 값을 적어주세요.

\_\_\_\_\_ 만 원

7. 아래의 자산 유형별로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적어주십시오.

자산 유형		총 보유액
금융 자산	예·적금	수시 입출금식 예금, 정기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등 만 원
	개인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만 원
	펀드	적립식·예치식 펀드 만 원
	주식·채권	주식,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한 금액 만 원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선물, 옵션, 파생결합증권, 암호화폐, NFT(영상, 게임, 예술품) 등 만 원
부동산	거주주택	만 원
	주택 외의 부동산	만 원

8. 귀하의 현재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 (1) 서울특별시      (2) 6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3) 시 단위 중소도시      (4) 읍·면·부 (농·어촌)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